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정신과 삶 속의 마리아

리나 달체리 지음

이호순 옮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정신과 삶 속의 마리아



리나 달제리 지음
이호순 옮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정신과 삶 속의 마리아

초판 발행 2008년 12월 8일

지은이 | 리나 달체리

옮긴이 | 이효순

펴낸이 | 최정희

편집인 | 김영희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253-242

전 화 | 02-841-8957

FAX | 02-842-7148

www.salesiansisters.co.kr

살레시오수녀회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정신과
삶 속의 마리아

차 례

서언	7
1부 영성의 카리스마적 원천	
돈보스코의 삶 속에 계신 마리아	13
1. 모든 것은 마리아의 것, 마리아로부터	14
2. 돈보스코의 삶 속에 살아계신 마리아	18
3. 돈보스코의 신심 : 마니파캇의 신심	23
4. 돈보스코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에 나타나는 교회감각	27
마리아의 표시를 지닌 생애 :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	31
1. 마리아의 빛을 띤 성덕	32
2. 신심인가? 신심들인가?	35
3. 마리아 마자렐로의 마리아 여정	38
4. 그리스도 중심의 신심	42
5. 생명의 신심	48

2부 도우미신 마리아의 딸들, 마리아 영성

1. 살아있는 기념비	57
2. 감사의 기념비	60
3. 마니피캣 정신	63
4. 성모님께서 여기,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66

3부 도우미신 마리아의 딸들

마리아 영성의 모델인 마리아 마자렐로

1. 마리아 마자렐로의 영성 법칙	73
2. 마리아의 삶과 신비 안에서	76
주님 탄생예고 : 개방, 경청	76
주님 탄생예고 : 확고한 신앙, 완전한 순종	81
방문의 신비에서	86
자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93
3. 마리아 형상	100

서 언

“온전히 성모님께 속한 수도가족”

돈보스코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FMA)¹⁾ 수도회는 본질적으로 마리아적 성격을 띤 수도회이다. 왜냐하면 수도회의 고유한 명칭이나 도움이신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특별한 신심을 고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딸들의 삶에 성모님의 영향이 깊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움이신 마리아 딸들의 존재와 활동에 있어서 마리아의 신비는 카리스마적 차원과 면모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또 역사적이고 영적인 얼굴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과 수도자들이 마리아를 천상의 어머니로 바라보고 있다면,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은 자신들의 수도회 초창기

1) FMA는 Figlie di Maria Ausiliatrice(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의 약자. 수녀 한 사람을 가리키는 Figlia(딸)를 표현할 때나 수녀들을 가리키는 Figlie(딸들)를 표현할 때도 같은 약자를 사용한다. 참고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는 한국에서 살레시오수녀회로 린다(역자 주)

에 있었던 은총의 고유한 프리즘을 통하여 마리아를 영감자요, 창립자로서 바라본다.

돈보스코는 하늘의 밝은 빛을 받은 독특한 꿈들을 통해 성모님에게서 그 자신의 고백대로 창립자의 길을 안내 받았다.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을 위해서도 그 꿈속의 ‘귀부인’ 으로부터

“네 어머니가 너에게 하루에 세 번 인사 드리라고 가르쳐 준”²⁾ 바로 그분이 성모님이심이 분명하다 — 살레시오회 곁에서 젊은이들에게 투신할 여자수도회를 창립하도록, 분명한 지시와 정확한 비추임을 받은 것이다. 1862년쯤, 돈보스코는 그가 받은 인상 깊은 꿈 이야기 하나를 돈 프란체시아에게 털어 놓는다. 수많은 아이들이 떠들어 대고 뛰어놀던 토리노의 빅토리오 광장에서 본 꿈이다. 소녀들이 그를 보자 달려오면서, 도와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그는 손을 내 저었다. 바로 그 순간 얼굴이 찬란히 빛나는 그 유명한 귀부인이 나타나 “그들을 돌보아라. 내 딸들이다!”³⁾ 하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 해에, 발진티푸스로 쓰러졌던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는 소녀들을 전적으로 돌보기 위한 길을 찾고 있었다. 하루는 모르네세의 보르고알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주택과 수많은 여자 어린이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깜짝 놀란 그녀는 그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걸음을 멈춘다. “어머, 눈에 보이는 이게 뭐지? 여기에는

2)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회상 44쪽.

3) FMA수도회 편년사 I, SR, CAPEITI Giselda 감준, I 24; FRANCESIA Giovanni Battista, 마리아 마자렐로 수녀와 FMA의 초기 두 유명인(S. Benigno Canavese, Libr.Sales, 1906) 27 참조.

이런 고층건물이 없었는데! 웬 일이지?”라며 혼자 중얼거린다. 그런데 “네게 이들을 맡긴다!”⁴⁾ 라고 명령하는 선명한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환상가’라고 나무라는 돈 페스타리노의 꾸중을 뒷전에 두고라도, 그녀는 집요하게 떠오르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그 집과 그 목소리는 그녀의 영혼 속에 지워지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이 새겨졌으며, 그것은 1872년 수도회가 창립되면서 현실로 바뀌게 될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돈보스코는 마음속에서 하늘의 계속적인 재촉으로 말미암아 남자수도회 곁에 여자수도회를 창립해야겠다는 분명하고도 지속적인 신념을 점점 더 굳혀가고 있었다.

돈보스코는 기적을 행하시는 성모님을 위해 세워진 발도코의 대성당으로도, 그 자신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수한 기적으로 도와주신 그분께 깊은 감사를 고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 마리아께 봉헌된 영혼의 성전을 바치고 싶어 하였다. 그 성전은 점진적인 발전과 완전해 지려는 생명의 힘을 품고 성덕과 효력, 사랑을 나타내며 세기를 통해 성모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싶은 성전이다.

성모님으로부터 영감 받은 그 ‘기념비’, 그 ‘성전’이 바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이다. 성인 창립자가 1872년 8월 5일 첫 서원의 날에 그 사실을 확인한다. “...여러분의 수도회는 그리스도인의 도

음이시라는 칭호 아래 기도하며, 하느님의 위대하신 어머니께 바치는 돈보스코의 살아있는 감사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⁵⁾

이 기념비가 마리아를 공경하는 가장 큰 성전, 로마에 있는 성 마리아 대성당 봉헌 축일에 솟아오른 것도 의미깊은 일이다.

돈보스코는 그날, 초창기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뜻있는 말로 수도회의 고유한 마리아적 특징을 밝혀준다.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성모님의 것이 된 수도가족에 속하였습니다.”⁶⁾ 이처럼 확실한 단언으로 수도회의 카리스마적 특수한 면모를 날인하고 영적인 얼굴을 봉헌한다.

수도회의 카리스마적 면모와 얼굴은 특히, 딸들이 마리아의 신비를 깊이 꿰뚫고 들어가 성모님과 파장을 맞추고 조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실제적인 행위는 성덕에 관한 것이거나 기도, 수덕, 공동생활 혹은 사도직 활동에 관한 것에 있어서도, 개인과 그 수도가족의 형상과 성장을 위하여 영적 여정을 이끌어 내도록 해줄 것이다. 사실 카리스마의 각 면모는 사람의 전 존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러므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리아의 인장을 지니고 있고,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일은 마리아께서 일러주시는 ‘표징’ 아래 전개되는 것이다.

5) 편년사 I, 364-365 참조.

6) 편년사 I, 364-365 참조.

1부 영성의 카리스마적 원천



“초창기의 두드러진 마리아적 특징이 처음의 싱싱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보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오로 6세, 도움이신마리아의 딸들에게 1972년 7월 15일

돈보스코의 삶 속에 계신 마리아

다.”²⁾ 그 순간부터 요한은 시련과 적대 속에서도, 때때로 그의 뒤를 쫓으며 반복되는 꿈을 통하여 성모님의 손을 잡고 자신이 겪어야 할 길

에게 스승을 주겠다고... 그분 없이는 모든 지혜가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그에게 지시하는 저 유명한 꿈속의 ‘위대한 문’이다. “내가 너 아홉 살 때, 성모님께서는, ‘스승이며 인도자’로서 그의 곁에 계신 상 전파 하려구나.”³⁾

친구들을 사랑하고 호시라도 네가 사제가 된다면 마리아 신심을 하 이제 네가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기를 부탁한다. 마리아 신심을 가진 때 나는 우리의 이 어머니께 신심을 가진 것을 네게 당부했었지. 를 때 나는 너를 복되신 동정녀께 봉헌하였단다. 네가 군부를 시작했 하는 이들의 온 생애를 만겨 드렸다. “요한아 ... 네가 세상에 태어났 어머니 맘마 맘마! 라는 그를 낳자마자 마리아께 봉헌하면서 사랑 스코의 생애 초기부터 그와 함께 계신다.

돈보스코의 삶은 마리아의 빛으로만 이해된다. 마리아께서는 돈보

1. 모든 것은 마리아의 것, 마리아로부터

을 따라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가 증언하기를, “내가 본 모든 것은 성모님의 손길을 통해 앞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모든 걸음, 온갖 상황 안에 복되신 동정녀가 계셨습니다.”(1876년 1월).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스승,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³⁾ 요한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 “성모님께 내 전적인 믿음을 두었습니다.”⁴⁾

요한의 길은 평탄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확신을 가지고 찾아 갔으며 그가 꾸었던 꿈들을 현실이 되게 하였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는 저를 항상 도와주셨고 또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⁵⁾ “성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⁶⁾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도와주셨다. “복되신 마리아께서는 저의 수호자이시고 경리이십니다.”⁷⁾

그는 이렇게 항상 앞으로 나아갔고 그분의 이름으로, 물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에서 좋은 결실을 내었다. “아무것도, 오라토리오 안에서는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 이외에, 아무것도 결코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⁸⁾라고 돈 프란체시아에게 당부하곤 하였다.

이런 확신은 환상이 아니라 성모님의 바로 그 말씀과 모성적 현존에 근거를 둔 것이다. “우리 수도회를 원하시는 동정녀 마리아께서

3) MB VII 676.

4) MB I 243.

5) MB V 191.

6) MB V 155.

7) MB IV 251.

8) MB V 439.

- 9) MB III 32.
10) MB XVIII 436.
11) MB VI 969.
12) MB V 720.
13) MB VII 676.
14) MB XVII 510.
15) MB V 155.
16) MB XII 578.
17) MB XVII 258.

원종해 계시다는 것을, 각자가 확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여 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꿈을 몰해사만이 아니라 복되신 어 머니께서는 실제로 당신 자신을 제게 기꺼이 보여주고 계십니다.”⁹⁾ 누가 그에게, 감수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성적 현존이 몇 번 이나 있었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는 “우리는 틀릴 수 없습니다. 마리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¹⁰⁾ “마리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¹¹⁾ 라고 화신 있게 말한다. 성모님께서도 그 말을 확인시켜 주신다. “이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¹²⁾ 돈보스코는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 서 베를루아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마리아를 통해 옵니다.”¹³⁾ 그는 그 순간을 경험하였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마리아의 채무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큰 사업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에 시작되고 완성되었습니다.”¹⁴⁾ 그는 되풀이하여 말한다. “오라토리오와 수도회가 생겨난 것은 모두가 마리아의 선하 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¹⁵⁾ “복되신 마리아께서 우리 사업의 청림 자이니나 지지자도 되어주실 것입니다.”¹⁶⁾ “마리아께서는 우리 수도 회와 어머니이며 기뻐하십니다.”¹⁷⁾

그는 마리아의 섭리적이고 미리 보살피시는 이같은 선하심에 거의 압도 당한다. “마리아는 우리를 위한 위대하신 이름입니다.”¹⁸⁾ “우리는 복되신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늘에 가서 만 알게 될 것입니다.”¹⁹⁾

돈보스코에게 마리아는 모든 사랑, 모든 기쁨이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다다를 수 없는 모성적 사랑을 체험시키며 그들을 그분께 이끌었다.

젊은이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살며 성모님을 관상하면서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지고, 로렌초의 거대한 액자 속에 그려진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에 이끌려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노래 부르면서 삶을 마쳤을 것이다.

18) MB IX 271.

19) MB X 1078.

도보스코의 마리아에게 대한 신심은 완전히 개인적인 관례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신심은 마리아의 살아계신 인격을 직접 대하는 것이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께 결합된 구원사명, 모든 자녀들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경청하시는 그분의 모성애를 찬양하고 찬양한다.

도보스코는 마치 만약 마리아가 다른 층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의 현존 속에서 살았다. 그것은 성모님을 가까이 느끼고, 보고,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며, 지시들을 실현하고, 그분의 끊임없이 민감한 모성적 원조와 일치하여 사는 것이었다.

스물다섯 개나 되는 ‘뭉’ 혹은 환시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동정녀께서는 가끔 그에게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젊은이를, 살레시아를, 도미니칸 마리아의 딸들을 위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주신다.

그에게, 아홉 살 때부터 사명을 알려주신다. “여기가 바로 네가 일해야 할 곳, 너의 밭이다.”²⁰⁾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양떼를 모두 너의 보살핌에 맡긴다.”²¹⁾

2. 도보스코의 삶 속에 살아계신 마리아

그에게, 젊은이들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다. “만일 네가 이 악동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주먹다짐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설득으로 대하여라.”²²⁾

그에게, 사명을 펼칠 장소를 보여주시고 사업들이 생겨나도록 하신다.²³⁾

그에게, 그 자신과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의 사명을 연결해 줄 수단을 암시해 주신다. “이 끈(순종)으로 그들의 이마를 묶어라.”²⁴⁾

그에게, 새로 세워질 성당을 보여주신다. “여기는 나의 집, 여기서 나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²⁵⁾

그에게, 찬란한 ‘장미 덩굴 동굴’을 보여주시며, 날카로운 가시들로 발이 찢길지라도, 그곳에서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견게 하신다. “가시와 장미 사이로 통과해야 할 길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네가 취해야 할 보살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라...”²⁶⁾

젊은이들의 정결 덕을 해치는 위험들은 무엇이며 정결은 어떻게 보존 하는가에 대해 ‘손수건’의 상징을 가지고 그를 교육하신다.²⁷⁾

그에게, 젊은이 각자를 위하여 1862년 생활지표를 선물하게 하신다.²⁸⁾

그에게, 무시무시한 꿈속에서 마귀인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를 보

22) MB I 424.

23) MB II 298 참조.

24) 상동.

25) MB II 343.

26) MB III 32.

27) MB VI 972 참조

28) MB VII 2-9.

여 주시는데, 그놈은 대학살을 하려고 젊은이들을 유혹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빙빙 돌고 있었다. 성모님은 이를 방어하려고 망토를 펼치신다. “모두 나에게 오너라 … 내게 무한한 신뢰를 가져라. 그러면 내 망토가 언제나 너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리라.”²⁹⁾

또 한 번은 물에 빠진 젊은이들을 ‘뗏목’으로 살려내신다. “너희가 만일, 내게 신심 깊은 아들들이 된다면 나는 너희에게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겠다.”³⁰⁾

그에게,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축일 구일기도를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의 이름을 알려주신다.³¹⁾

그에게,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알려주시면서 기숙사 방들을 방문하도록 동반해 주신다.³²⁾

1872년에는 ‘새매(배과의 새)에게 납치된 밤 피꼬리’의 상장을 통해 피정을 잘 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을 알려주신다.³³⁾

오라토리오가 시련을 겪을 때 성모님은 발코니에 모습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보호할 아주 넓은 망토를 펼치시면서 모성적 도움을 주신다. “나의 아들들아, 와서 내 망토 아래 의지하여라!”³⁴⁾

오라토리오의 운동장에서 다른 맹수들과 함께 있었던 괴물 하나가 소년들을 향하여 위협적으로 돌진하고 있었을 때, 성모님께서 돈보

29) MB VII 356.

30) MB VIII 275.

31) MB IX 337 참조.

32) MB X 44 참조.

33) MB X 49 참조.

34) MB XI 257.

스코를 안심시키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³⁵⁾

그에게, 살레시안들을 위하여 알록달록한 색깔로 된 사탕과자를 만들고 있는 한 여인의 의복 아래쪽을 보여주며 설명하신다. “흰 것들을 만드는데 약간의 노고가 요구되지만 쉽게 더럽혀질 수 있다. 붉은 것은 피가 요구되고, 검은 것은 생명이 요구된다. 이것들을 맛보는 사람은 피곤을 알지 못하고 죽음도 모른다.”³⁶⁾

여자 농부의 모습으로 나타나 수많은 젊은이와 걸으면서 그에게 프랑스에 농업학교를 설립할 것을 명령하신다. “나의 아들들이니 너에게 이들을 맡긴다.”³⁷⁾

그에게, 그녀의 망토로 보호받는 프랑스의 집들을 보여주신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³⁸⁾

독특한 ‘뉘’ 꿈으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에 관하여, 그들이 성소에 충만하게 응답하게끔, 주의 깊은 선택을 할 줄 알게 되도록 그를 교육하신다.³⁹⁾

또 다른 꿈에서 그에게 ‘뉘’ 을 전네면서 “땅을 너무 크게 차지하는 풀들을 잘라내라.”⁴⁰⁾ 고 초대하신다. 그런 다음, 휘둥그레진 그의 눈 앞에서, 칠레에서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선교지를 열어 보여주시고 그의 아들들이 “마리아의 덕을 항구하게 본받을

35) MB XII 349.

36) MB XIII 302.

37) MB XIII 534.

38) MB XIV 608.

39) MB XV 364 참조.

40) MB XVII 433.

것”⁴¹⁾을 당부하면서 달으신다.

1887년 1월에 ‘능하신 분은 위대한 일을 하셨던 여중’⁴²⁾임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수도회의 선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알람을 주신다.

같은 해에 돈보스코에게 자선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신다.⁴³⁾

1887년 12월(성인 생애의 마지막)에, 리에지에 집을 열도록 그를 격려하면서 이 독특한 꿈들의 긴 시리즈를 마치신다.

돈보스코는 감동으로 단언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틀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마리아이시기 때문입니다.”⁴⁴⁾ 동방 박사들처럼, 돈보스코는 괴로움이 많았던 그의 여정에서 별이신 마리아의 빛을 따라 안전한 길을 걸었던 것이다. “나의 모든 희망은 성모님 안에 있습니다.”

돈보스코의 별 역시 “마리아를 사랑 하여라, 공경 하여라, 봉사 하여라!”⁴⁵⁾라고 살레시안들과 소년들에게 지시하신다. 그들이 그분을 어머니처럼 가까이 느낄 때, 그분께 신뢰심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리아의 모성적 현존은 오라토리오 안에서 기쁨, 평화, 안전함을 발산하는, 살아있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느껴졌으며 “마리아는 여기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였다.

41) MB XVIII 72.

42) MB XVIII 253.

43) MB XVIII 361 참조

44) MB XVIII 439.

45) MB V 655.

3. 돈보스코의 신심 : 마니피캇 신심

은총의 물은 강물처럼 계곡들을 가득 채운다. 사람들은 돈보스코에게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은총의 어머니, 마리아께 자신을 비우고, 희망에 완전히 열려진 ‘가난한 이의 마음’을 발견하였다. 마리아께 모든 것을 드린 이 가난한 이의 마음 깊이에서 그의 기쁜 희망이 피어났는데, 그것은 그가 무한한 감사으로 마음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었다.

마리아를 통해서 저 높은 곳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에 대한 셀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분의 끊임없는 효과적인 현존에 대한 기쁜 확신은 돈보스코의 모든 날을 즐겁게 하고, 기도를 생기 있게 하며, 강론에 불을 붙이고 그의 모든 말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찬미의 마니피캇이 터져 나오게 하였다.

돈보스코의 온 존재와 생애는 하나의 ‘감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성모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체제로 집중되고 양육된 그의 영성은 은총의 활동으로 성체적 색채를 띤다.

마리아께 대한 그의 신심은 마니피캇의 정신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미가가 된다.

감사의 정신은 바로 돈보스코의 기도와 삶의 드라마이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은 돈보스코 자신의 본성을 이루는 주요한 특징이다. 아주 작은 친절한 행위라도 그를 감동시키고 감사하게 한다. 최상의 증여자이시며 모든 선물의 영감자이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그는 선물 자체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것을 봉헌하는 사람의 마음과 이탈감으로, 그들을 고취시켰던 관대한 애덕으로 마음을 향한다. 그의 마음의 저울 위에서는 부자가 주는 큰 수표나 과부의 잔돈이 같은 무게를 가진다. 가난한 이의 작은 선물은 눈에 띄는 부자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한량 없는 은혜들 때문에 하느님께 그리고 그의 수많은 방문객 중 가장 보잘것 없는 이에게도 채무자임을 느끼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가 쓴 많은 편지의 상당수가 감사의 편지들이다.

감사는 현명한 교육자가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덕목 중의 하나이다. 돈보스코는 이를 확신있게 단언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⁴⁶⁾ 이어 이렇게 덧붙인다. “어린이가 지니고 있는 감사의 마음은 대개 행복한 장래의 예고입니다.”⁴⁷⁾

따라서 양성을 위한 연중계획 중에서 ‘감사 축일’은 상당히 특혜

46) MB XIII 756.

47) MB VII 494.

적인 공간이다. 돈보스코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축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영혼을 이끌어 교육하려는 것이다. “이런 축일들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⁴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이기주의자이다.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⁴⁹⁾

돈보스코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감사에 민감하다. 이미 말했듯이 하느님과 마리아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 복되신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셀 수 없는 은혜들에 대한 분명한 의식은, 놀랄만한 정신의 열정과 기쁜 감사로 터져 나온다.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발전시킨다. 여기 발도코의 웅장한 도움이신 마리아의 성전이 있다. 성전의 각 돌이 하나의 ‘감사’ 이고, 모든 돌들은 성모님과 또 그분이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합니다’ 이다. 그리고 돌 성전에 이어 ‘살아있는’ 성전이 뒤를 잇게 되는데, 그것은 복되신 마리아께 대한 돈보스코의 감사의 표현을 선언했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이다.

성모님께 대한 돈보스코의 신심을 ‘감사의 신심’이라 일컫는데, 이는 바로 영적으로 참된 가난을 사는 깊고 성실한 감각에서 솟아나는 겸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8) MB X 1255.

49) MB XIV 511.

돈보스코가 자신을 해방시키는 이 가난에서부터, 그 뿌리 깊은 ‘그 외의 것은 다 가져가라.’에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그가 하느님이 아닌, 또 하느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의 깊은 신심으로 인하여 억제할 수 없는 마니피캇을 터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돈보스코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에 나타나는 교회 감각

에지디오 비가노 총장은 돈보스코의 “교회적 감각은 도움이신 마리아의 교의보다 더욱 특징적인 요소”⁵⁰⁾ 라고 말하였다.

돈보스코는 ‘도움이신 이’의 명칭으로 마리아를 공경한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교회와 그 필요성, 교회를 괴롭히는 문제와 위험성, 투쟁의 그 정조 위에 당신의 시선을 두셔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오늘날, 마리아께 기도해야 한다고 느끼는 보편적 요구는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다. 더 열광시켜야 할 미지근한 사람, 회개시켜야 할 죄인, 보존해야 할 결백한 사람들에게 머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람의 주변에서든지 함께 있어왔다. 하지만 공격당하는 것은 바로 가톨릭교회이다. 교회직무가, 거룩한 단체가, 수위권이, 교의가, 교회의 가르침이 공격당하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진리의 중심이, 모든 신도들의 스승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⁵¹⁾라고 썼다.

50) VIGANO Egidio, 마리아께서 돈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을 새롭게 하신다 (로마 SDB 1978) 23.

51) 돈보스코, 도움이신 마리아의 호칭 아래 기도한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경탄 (토리노 1868) 6-7.

돈보스코는 마리아 안에서 교회를 돕는 분을 보았다. 이 교회적 면모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명칭과 같은 본질적인 요소이다. 돈 칼리에로에게 이를 명확하게 밝힌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란 명칭 아래 당신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간직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⁵²⁾

그래서 그는 돈 카빌리아가 잘 지적한 것처럼, 권고적이고 거행적이며 신심적인 호칭⁵³⁾에 관해 협소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좀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신비 안에 그리스도께 밀접하게 일치된 분으로서의 성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칭호 안에 마리아의 다른 모든 칭호들과 변모들이 모아진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신적 모성애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마리아의 본질적인 역할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돈보스코는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3회기의 끝에 바오로 6세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공언한다. 성인의 말은 분명히 이렇게 들린다. “18세기 정침은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보도록 해줍니다. 마리아께서는 지상에서 시작하셨던 그리스도인의 도움과 교회 어머니의 사명을 대단히 훌륭하게 하늘에서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⁵⁴⁾

52) MB VII 334.

53) CAVIGLIA Alberto, 도메니코 사비오의 생애, 출간작품과 미간작품 IV (토리노 SEI) 314.

54) 돈보스코, 경탄 45.

돈보스코의 마리아 개념에 의하면, 도움이신 마리아는 교회적인 모성애의 면모를 밝게 드러낸다. 오늘날 「교회현장」이 언급하는 것처럼, 도움이신 마리아는 부지런한 어머니이다.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네 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⁵⁵⁾

돈보스코는 이런 교회적 면모를, 토리노에 세워진 대성당을 위해 고안했던 로렌초의 큰 액자 속에서도 유연하게 표현한다. 도움이신 마리아는 교회의 기초이며 기둥인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에 둘러싸인 채 그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다. 확실히 말해서, 성인이 그 거대한 천 속에 표현할 수만 있었더라면 교회의 모든 관점들을 그곳에 다 나타내었을 것이다.

그가 작사하고 칼리에로가 작곡한 기도도 있다. ‘오 능하신 동정 마리아’는 교회정신으로 가득 찬 기도인데, 도움이신 마리아의 호칭에 대한 교회론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돈보스코가 깊이 살고 고통했던 교회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움이신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구원역사와 교회의 삶 안에서 복되신 동정녀의 임무에 대한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관계하고 행동하는 진리 즉, 활동하는 자세와 함께 열매 맺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수반한다.

55) 교회현장(2002년 개정판) 62.

사실, 돈보스코는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교회를 위한 적극적인 임무를 통하여 실천하였다. 교회의 살아있고 활기 있는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행동하며 은총 안에 살도록 신도들을 인도하였으며,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행하시는 도움의 사명에 일치하여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였다.

마리아의 표시를 지닌 생애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

1. 마리아의 빛을 띤 성덕

마드레 마자렐로의 성덕은 일핏 보기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성덕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이나, 정신을 자극할 만한 것도, 성덕을 감지하는데 영향을 줄 만한 어떤 특별한 것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카빌리아는 마리아 마자렐로를 이렇게 표현한다. “돈보스코의 스타일대로, 그녀는 성녀처럼 보이지 않았던 성녀이다. 물론 그녀 자신도 성녀로 알거나 믿지도 않았다.” 그의 성덕은 “완전한 의무와 사랑, 사리분별로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집안일을 돌보는 성덕이었다. 초자연을 더할 나위 없이 비취 보이거나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도 결코 없었다. 그녀가 꾸려간 일상의 삶은 그녀를 고무하고 영감시키는 천상적인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⁵⁶⁾

그녀의 성덕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돈보스코의 영적 사실주의의 노선에 있는, 순수하고 꾸밈없는 성덕이다. 일과 기도, 임무에 대한 의식적인 근면성, 시간 사용, 일상적인 것 등에 초자연적 가치를 주는 성덕이며 삶이 제시하는 상황에 육화시키는 성덕이다.

56) CAVIGLIA Alberto, 복녀 마리아 마자렐로 (토리노 SEI 1938) 6-7.

가장 큰 단순성으로 감싸여진 성덕이다. 성녀의 덕행이 지닌 영웅성을 선포할 때, 비오 11세 교황은 권위 있게 이를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위대한 여종은 그녀가 지녔던 모든 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가장 겸손한 단순성을 드러낸다. 단순한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보배로운 단순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매우 비범한 특징과 재능을 가진 풍요로운 인물이다. 하느님의 겸손한 여종은 참으로 이러하였다.”⁵⁷⁾

저명한 영성가 P. 파베르가 성녀의 단순성에 대해 단언한다. “탈혼 상태보다도 더 드문, 대단히 보기 드문 선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단순성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느님을 닮은 창조물이 되게 한다. 마치 매우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인 한 점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바로 여기, 매일의 평범한 일상의 성덕, 가장 위대한 단순성으로 빛나는 이 성덕 안에서 우리는 우선, 복되신 동정녀의 성덕과 마리아 마자렐로의 성덕의 근본적인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혹시 성모님의 삶은 달랐을까? 복음서는 성모님에 대해 우리에게 퍼들썩한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에게 성모님을 여 예언자처럼 소개하는가? 예외적인 여인인가? 아니다. 성모님에 대해 복음서는 우리에게 몇 마디 말로 보고하고 있을 뿐, 아무런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57) 비오 11세, 담화 1936. 5. 3.

(58) 바오로 6세, 강론 1967. 8. 15.
 (59) 바오로 6세, 강론 1968. 8. 5.
 (60) 마리아 공경 56.

이다.

치 성령환동의 특혜적 대상이었던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처럼 만고 풍요로운 성력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의 대상이 되었다. 마인정을 받았으며 직접적이고 활찬 환동의 흔적을 남기면서 권고하는 것 같이 보이는 단순한 존재로 살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성령의 성녀 마리아 마자렌토는 겸손하게, 특별한 은총의 보화를 품지 않은 자매요 우리의 공범을 함께 나누신 가난하고 겸손한 여인이시다.”⁽⁵⁸⁾

또 「마리아 공경」에서 언급한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상의 시미이었고 우리와 같은 젊은 길을 지나가셨습니다.”⁽⁵⁹⁾

습니다[...]. 매우 흔한 대중에 속해 있었습시다.”⁽⁶⁰⁾ “그분께서도 이 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외관상의 자격을 소유하지는 못했었지만 사회적 지위는 매우 소박했고 백성 중의 한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에, 오히려 맨 툄 자리에[...]. 성모님의 신 스로 비취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물사람 가운데 자리를 잡으 사님, 교황 바오로 6세도 묻는다. “성모님은 어떠하셨습니다나? 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의 한 여인이 보여주는 평범한 인사의 삶으로 드러 못하고 묻다면, 복되신 동정녀의 생애는 당시의 팔레스티나 환경에서 우리가 만일, 미리 선택된 유일부이한 사명에 연결된 특전을 떼어

2. 신심인가? 신심들인가?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가 성모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신심인가? 혹은 신심들의 총체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성녀의 신심이 진정한 마리아 영성인지 그 출발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신심과 신심들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신심은 본질적으로 종교의 내적 행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기본자세이며, 하느님께 올리는 예배에 신속하고도 기쁘게 이끌리면서 사람을 온전히 감싸들이는 행위이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필로테아」에서 참된 신심에 대한 개념을 밝혀준다. “필로테아여, 참되고 살아있는 신심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 아니, 하느님의 참된 사랑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다 [...] 이런 완전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선행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근면과 포기, 신속성을 지닌 신심의 이름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심은 “영적 유연함과 쾌활함이며 그로써 애덕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우리는 그 애덕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애덕 안에서 일하게 된다.”⁶¹⁾

- 신심들은 표시를 나타내는 실천에 연결된 것으로써, 신심의 한

61) FRANCESCO DI SALES, 필로테아 (토리노 SEI 1964) 5-6.

마드레 마자렐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복되신 마리아를 공경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신성한 사건을 예견대, 마리아께 할 수 있는가?

인간 혹은 신성인인가? 어떤 의미로 성녀의 영성을 마리아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열렬하게 계속되는 신성 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 신성도의 신성이 복되신 동정녀께 대한 진정한 신성이었는지 혹은 단순이 이를 전제하고 안에 놓인 질문으로 돌아가자. 성녀 마리아 마자렐를 가운데서 유일하고 대치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첫째가 되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총의 흐름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신적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 리스도와의 밀접한 결합 때문에, 그리고 산위 일체적 삶 속에 평연적 인이 공경하는 특별한 자리를 소유하신다. 신성한 모성으로 인한 그 자적인 위치 때문에 또 당신 자신의 인격적 참여로 인하여 그리스도 성모님은 의심의 여의없이,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당신의 독마침이시기 때문이다.

가 그분의 종들과 복되신 동정녀를 공경하는 모든 신의 시작이며 서만 멈추지 않고 항상 하느님께 향하도록 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또 신성은 마리아께 혹은 성인들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 그들 안에 있다.

다면 비어 있는 형식주의나 불모와 허위적인 신성주의로 변질될 수 움직임에 뿌리내리지 않고 애덕의 영적 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참된

물론 자신의 존재가 마리아에게 속해 있고 전적으로 마리아의 것이기도 시간, 로사리오, 영적 꽃다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존재가 마리아에게 속해 있고 전적으로 마리아의 것이기도 시간, 로사리오, 영적 꽃다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라는 표현이고 표시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의 성녀의 마리아 영성은 대단히 깊이가 있다. 내적인 참된 몸적 임이 있고, 참되고 본래의 신성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그 마리아적 범향을 자신 안에 설정해가는 항구한 정신의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회헌장」 67항이 이에 대해 말한다.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천주 성모의 탁월함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머니께 대한 자녀다운 사랑을 불러 일으키고 그분의 덕해를 존배를 수 있다.”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의 신심은 실제로, 주님과 함께 공동구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사명에 결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완전한 신앙에 뿌리를 둔다. 그리고 마리아의 자세, 덕행, 삶, 그 신비를 자신 안에 재생하기 위하여 하나의 본질적인 감명을 통해 구체화시킨다. 마리아의 영적 영공에서 분을 받고, 자신 안에 재현시키는, 말하자면 자신 안에 신비적으로 마리아를 융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은 성녀의 매우 단순한 구두형식으로 표현된다. 마리아를 읽는 것, 그 덕들을 재현하는 것, 혹은 좋다고 여긴다면, 단순성 안에서 함축성 있게 표현한 그녀의 말 그대로 “우리는 성모님의 참된 모상을”⁶²⁾이라는 것이다.

3. 마리아 마자렐로의 마리아 여정

마리아 마자렐로는 원죄 없으신 마리아, 고통의 성모 마리아, 도움이신 마리아 등 삼 중의 명칭 아래 복되신 마리아께 대한 공경을 드러내었다. 그녀는 마리아의 신비를 자신의 삶 전체에 담아서 실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완전한 충만성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 돈보스코처럼 마리아 마자렐로도 처음부터 마리아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으로 알고 공경한다. 소녀 때부터 ‘임마쿨라파회’(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딸들의 회) 안에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다.

바오로 6세가 정의내린 것과 같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특권과 예외의 신비, 단일성과 완전의 신비이시다.”⁶³⁾ 이러한 신비 안에 마리아의 충만한 은총, 완전한 성덕, 흠 없는 순응성, 매력 등이 합류한다. 마자렐로는 이런 마리아께 자신을 견고히 묶는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딸이 될 것이다.

이 지극히 순수한 샘에서 성녀는 소녀 때부터 완덕과 성덕의 갈증을 길어냈다. “은총과 성령의 카리스마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⁶⁴⁾ 그녀는 동정성으로 빛나고 성체 사랑으로 타오른 자신의 젊은 시절

63) 바오로 6세, 담화, 원죄 없으신 잉태 1966.

64) 상동.

게 구속한다.

올의 성모 마리아 애자 앞에서 매일, 고올의 신비 묘사리오를 열렬하게 스며들도록 노력하면서, 돈 페스타리노가 선물했던 아름다운 그림자기를 기쁘게 입차시키기 위하여 빛과 힘을 이끌어 내고 그 의미의 성녀는 세상 구원을 위한 예수님과 마리아의 고올에 자기 매일의 시킨다.

의 여성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마리아 신심을 더욱더 굳게 하고 구체화했다는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올의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성녀 포공 포성, 즉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인류의 보편적 모성을 갖게 그녀는 세상과 역사의 차원에 열린 그 고올이 성모님으로 하여금 새다는 것을 느낀다.

싸 들어오는 것이었다. 마리아 마자렐로는 거기에 동참하도록 물려있면서, 성모님은 아드님의 고올스러움 수난을 끝까지 감내하여 구원사업에 마리아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그 운동구속적 줄의 사랑과 고올의 신비는 그녀를 끌어들이고 작게 한다.

이 예언한 권에 열린 사랑을 신앙으로 받아 안도록 한다. 복되신 동태 위에 계시는 마리아의 사랑을 자신의 생애를 위해 받아들여주고 시메온의 신비 앞에서 그라하였다. 성녀의 우아한 여성적 감각은 문고 시는 문이다. 이는 성모 마리아의 은총의 신비 앞에서만 아니라 돈보스코처럼, 마자렐로의 삶에서도 마리아는 살아계시고 현존하는 다움을 밝히하였다.

를 구원하려고 했으며 어린이를 가운데에서 순결에 대한 영적 아들

다.”⁶⁶⁾

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한 종속과 일치로) 구원의 임무를 그치지 않으신
 종의 제회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을 용화시키는 성모님이시
 「교회학자」은 그녀의 신적 모성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

사명을 동탄하는데 종만까지 끊임없이 협력하시는 분이시다.
 회개의 사명 안에서 은하신 도음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구원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도음이신 마리아는 항상,
 군으로 뭉개 갈 수 있도록 역동적인 힘을 새겨준다.

영성이 단순한 내적 생활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증거하는 활동적 현
 열화주면서, 앞에서 말한 들을 결합시킨다. 그리하여 성녀의 마리아
 새로운 관점으로 성모 마리아를 소개시킨다. 교회 차원으로 시야를
 내던도록 열어준다. 도음이신 마리아의 사도, 도모스고는 그녀에게
 돈보스코와의 만남은 성녀에게 마리아적 여정에 새로운 큰 결음을
 기⁶⁵⁾ 라고 한다.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을 가리키면서 “그분은 여기, 그리고 우리는 여
 분성적으로 단순했던 성녀는 이를 의미 있는 표현으로 변형시킨다.
 리스도께 대한 그 ‘은음’의 은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였으며
 그들의 성모 마리아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그
 에 대해서도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데 매우 충실하였다.
 돈보스코에 의해 구치사 안에 이 신심성이 실현되도록 확정된 것

돈보스코가 임마쿨라파회 작은 그룹에게 성모님을 소개하고나서, 나중에 그가 성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며 또 그들이 영광스런 이름을 받아들일 의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 마자렐로는 기뻐 용약하였고 새롭고 위대한 불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교회의 차원으로 마음을 넓히면서, 그리고 봉헌된 사도로 스스로의 성소를 충만히 실현하면서 도움이신 마리아와 함께 돕는 이가 되는 것이었다. 마리아의 신비는 이렇게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의 정신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

4. 그리스도 중심의 신심

참된 마리아 신심은 그리스도께 향해져야 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아져야 한다. 이 그리스도론적 특성은 마리아 신심에 있어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마리아 공경」이 분명히 밝혀주는 것처럼, “동정 마리아께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원으로부터 마리아를 택하시어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성령의 은사들로 꾸며주신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다.”⁶⁷⁾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공경심은 “우리가 모두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⁶⁸⁾가 된다.

마리아는 고유한 특전들을 지니고 계시고 사명을 위하여 강생하신 말씀의 어머니가 되시기로 미리 선택되셨다. 당신의 온 생애는 그리스도께 방향 잡혀 있었으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사셨다.

67) 마리아 공경 25.

68) 상동

복되신 동정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이 바라보고, 소개하는 빛으로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진실을 알 길이 없다. 즉, 그분은 주님과 함께 주님 밑에서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면서 당신 아드님의 인격과 사업에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던”⁶⁹⁾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인도되지 않고 열렬한 신심을 키우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잠기지 않는 진정한 마리아 신심이란 있을 수 없다.

성녀 마리아 바자렐로의 삶과 영성에 있어서, 이런 깊이 있는 방향 설정은 그녀가 마리아께 갖고 있는 신심의 특징이다.

그녀 안에는 돈보스코처럼, 성체 예배와 마리아 신심이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오히려 이런 신심이 그녀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생생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향해 신비스럽게 방향 잡혀 있었다. 그분께 온종일 사랑스러운 갈망으로 기도하였으며, 그분을 향해 있었기에, 첫 영성체 허락이 있기가 무섭게 이른 새벽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한다.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시고자 어떤 시간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녀의 이 사랑은 영웅적 행위의 절정까지 이른다. 예컨대 새벽 두 시에 본당을 향해 걸어갔을 때, 그리고 눈으로 열어붙은 나막신이 성당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던 때를 볼 수 있다. 그녀는 그런 것이 영웅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였다. 그런 일들은 그저 그

69) 교회헌장 56.

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루의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깜짝 놀랄 만큼 하느님과 의 일치를 지속성을 가지고 산다.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오 분간 있었다고 고백함으로써 그녀 스스로 그것을 증언한다. 그녀 안에 살아계신 마리아의 현존은 예수님의 현존을 살게 한다. 그 현존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불꽃이며, 두 극처럼 서로가 서로를 재촉하고 있다.

거의 항상, 예수님과 마리아가 연결되어 그녀의 입술 위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됩시다.”⁷⁰⁾라고도 쓴다.

“여러분의 정배이신 사랑하는 예수님과 언제나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항상 신뢰합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⁷¹⁾

“항상 예수님과 마리아님 앞에서 일하십시오.”⁷²⁾ “우리를 비추시고 지탱해 주시는 예수님과 거룩하신 동정녀께 기도합시다.”⁷³⁾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께 대한 그녀의 활기차고 깊은 신심은 혹시라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 상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과실을 피하도록 이끌어준다. 하느님의 생명이 자라게 하는 은총이 자신과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 속에서 증가하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70)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의 편지, SR, POSADA Maria Esther 감준 (로마 FMA 1980²) 15, 2.

71) 편지 34, 2.

72) 편지 64, 2.

73) 편년사 | 117.

고통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동정 마리아와 함께 성자의 수난을 심화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 우리가 본 것처럼 — 모든 이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 그리스도와 함께 “은총의 계획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하시는 마리아의 모성적 활동”⁷⁴⁾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모성적 활동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낳는다. 진정한 마리아 신심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런 낳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우리 안에서 당신 생명을 계속하고, 활동하시며, 당신의 신비들을 채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육화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도의 말대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형성시킨다는 것은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다.”⁷⁵⁾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요, 수도자 삶의 최상 목적이기도 한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참으로 복되신 마리아의 사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육화된 말씀으로 낳으시고 형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는 만큼, 그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형성되신다.

성 몽포르 그리뇽은 단언한다. “극소수의 영혼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던 짧은 생애의 충만한 경지에 도달하는 단 한 가지 이

74) 교회헌장 62.

75) 필리 1, 21.

유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영원한 배필이시며 아드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충분히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양 좋고 잘 익은 과일을 원하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내는 나무를 소유해야 한다. 생명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아드님을 당신 안에 모셨던 생명의 나무, 마리아를 소유해야 한다.”⁷⁶⁾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기’ 까지 그분과의 점진적이고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는 우리 성녀의 생애를 보면, 그녀의 삶 속에 복되신 동정녀께서 더욱더 살아계시고 활동적으로 현존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모님께서는 마자렐로가 자신의 결점들을 벗어버리도록, 효심과 신앙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사도직에 열리도록,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도록, 인내의 모범이 되도록, 겸손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한 마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녀를 인도하셨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영을 새로 입는다는 것은 실로 그녀에게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착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입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은 끊임없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 주님의 축복을 청한답니다...”⁷⁷⁾라고 쓴다.

76) GRIGNION DI MONTFORT Luigi Maria,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신심서 (Catania, ed. Paoline 1977) 142 / 에디 도허티 번안,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최영철 옮김 (아베마리아 출판사 1999) 143-144.

77) 편지 23, 4.

다른 편지에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부드러운 아기 예수님께 기도 했지요 [...] 여러분에게 그분의 성덕과 겸덕, 여러분 자신으로부터의 이탈,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분께서 영원하신 아버지께, 성 요셉께, 마리아께 가지셨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천하셨던 복종, 단순하고 즉각적인 그 순명정신을 주시도록 말씀드렸어요.”⁷⁸⁾

마리아께서 인도하시는 학교에서 그녀는 모든 존재와 생명들이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모든 것을 당신 안에 한데 모으도록”⁷⁹⁾ 하느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78) 편지 32, 1.

79) 에페 1, 10.

5. 생명의 신심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활기차고 순수한 예배란 「마리아 공경」⁸⁰⁾이 말하듯이, ‘모든 삶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써,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명의 신심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복되다고 외쳤던 여인에게 대답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⁸¹⁾라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신심 즉, 마리아의 모범적인 성덕 안에서 “거룩한 은총 속에 있는 성장의 기회”⁸²⁾를 보고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이다.

성모님은 사실, “뽀뽀한 이들의 온 공동체에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고 계신다.”⁸³⁾

“순수한 창조물 안에 있는 보증과 담보는 [...] 인간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이미 실현하였다.”⁸⁴⁾

그러므로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단지 신심업이나, 신심적인 피정, 더욱이 순전히 감상적인 표현에 있지 않으며 그분 안에서 빛나

80) 마리아 공경 38.

81) 루카 11, 28.

82) 마리아 공경 57.

83) 교회헌장 65.

84) 마리아 공경 57.

는 ‘복음적인 견고한 덕’⁸⁵⁾을 살기 위해 마리아를 향구하게 본받는 데 있다.

자신의 영적 삶의 단순성과 일관성 안에서 마리아 마자렐로는 실존의 구체적인 생활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 의무, 자기 삶 안에서 그것들을 위한 사랑과 그것들 안에 존재하는 복된 신앙을 육화시키는 것이었다.

마리아께 대한 생명의 신심은 그녀가 성모님 얼굴의 선線들을 그리기 위하여 그 생생한 모상을 따르고, 살아있는 닮은 꼴이 되기 위하여 성모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삶과 가르침은 부모 슬하에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바른 길을 걸은 은총의 결실이였다. 「편년사」는 말한다. “엄마는 끊임없이 깨어 제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딸 하나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부모의 눈에서 결코 멀리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⁸⁶⁾ 그리고 아빠는 저에게 얼마나 많은 부탁을 하셨는지! ‘검소해라, 여기 저기 바라보지 마라,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셨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⁸⁷⁾

임마쿨라파회의 규칙서도 삶 속에서 육화하도록 마리아 영성계획

85) 상동.

86) MACCONO Ferdinand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의 정신과 덕행 (토리노 FMA 1958) 99.

87) MACCONO, 정신 100

을 제공해 준다. “회의 목적은 고해사제 앞에서 개인으로 하는 정결과 순명시약을 통해 자기 성화에 힘쓰고, 좋은 모범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며, 잦은 성사를 받는 것이다.”⁸⁸⁾

임마쿨라파 회원인 마리아 마자렐로는 소녀들이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인도한다. 그녀가 소녀들에게 끈기 있게 가르치는 신심은 언제나 성사와 미사에 자주 참례할 것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충실할 것으로 표현된다.

당시의 신심활동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 대단한 직감력을 가지고 「마리아의 작은 정원」을 사용한다. 자기 마음과 성향을 살펴보고 깨닫기 위한 하나의 탁월한 실전이었다. 개혁의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도 그것을 사용하였다.”⁸⁹⁾

돈보스코에게서 받았던 임회를 위한 첫 지침은 영혼들 안에 하느님 나라가 오시도록 삶을 기도로 바치라는 하나의 초대였다. “물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특히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죄라도, 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십시오.”⁹⁰⁾

돈보스코가 임마쿨라파 그룹과 함께 창립한 수도회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이라는 칭호 아래 복되신 동정녀께 드리는 그의 감사의 살아있는 기념비”⁹¹⁾가 될 것이다. 기념비의 살아있는 모든 돌들은 도움이

88) 편년사 | 76-77.

89) 편년사 | 153.

90) 편년사 | 139.

91) 편년사 | 364-365.

신 마리아의 상像을 가능한 한 가장 충실하게 반영시키는 기념비가 되기 위해, 마리아께 드리는 영광의 찬미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동정녀의 덕행을 삶 속에 육화시키면서 하느님의 총체적인 계획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가족은 온전히 마리아의 것이 되었다. 영감자이셨던 성모님은 수도회의 어머니요 인도자가 되신다. 성모님을 대행하는 사람은 대리자 이상이 되지는 못한다. 마드레 마자렐로는 완벽하게 이 시야로 들어가서 그녀의 단순함으로 뜻있는 행동을 한다. 그녀는 집의 열쇠를 성모님의 발치에 갖다 놓는다. 성모님의 완전한 통치를 인정한 것이고 그녀와 미래의 많은 원장과 마드레가 될 딸들의 전적인 마리아 소속을 공언한 것이다. 마리아께 대한 근본적인 증여의 이 같은 행동은 자신과 그녀의 딸들이, 살아있는 영적 얼굴을 빼어 닮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모상을 반사하도록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다.

1875년 5월, 영적 꽃다발에 관하여 한 마다 해달라는 요청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성모성월에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은 봄에 돋아나는 식물처럼,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맨 먼저 굶는 십자성호부터 저녁에 굶는 마지막 성호까지 다른 특별한 것들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매일 매일의 신심업들을 더 깊은 주의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⁹²⁾

우리는 또 「편년사」에서 이러한 권고를 듣는다. “우리가 만일 우리들 사이에 애덕을 실천한다면, 희생정신을 가지고 절제하고 고취된다면, 우리의 규칙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그렇다면, 정말 성모님의 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⁹³⁾ 그러나 그 ‘만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불안의 요소를 띠고 있다. 불행하게도 삶에서 신심이 분리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믿는 것과 사는 것, 말로 고백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지식과 사랑, 기도와 활동 사이가 쉽사리 분리된다는 것이다.

마드레 마자렐로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믿어야 할 총체적인 진리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따라야 할, 살아 있고 현존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원칙이 살아 있다.

살레시오 분원에서 하는 일 속에서는 자기실현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 수련자에게 성녀는 주의를 주고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많이 일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마 성모님께서도 사도적인 학교 안에서 매우 기쁘게 지내실 것이고 당신과 같은 일로 바쁘셨을 거예요. 기쁘게 살고, 겸손하고 순명하세요.”⁹⁴⁾

“수도회가 시작한 날, 눈물 성모님의 사랑을 위하여...” 정결을 큰 가치로 여기며 최대의 섬세함으로 실천하도록 수녀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평소 때와 달리 쾌활하게 끝맺는다. “요컨대 우리는 돈보스코

93) 편년사 II 317-318.

94) 편년사 III 244.

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모님의 참된 모상들입니다.”⁹⁵⁾

「편지」들은 이론과 실천, 신념과 삶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요구하는 성녀의 의도를 확인시켜준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규칙서는 그날을 장엄하게 거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은 가장 아름다운 축일 중의 축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보여드릴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날짜가 남아 있는 이즈음에 모든 덕에서, 특히 순명과 절제를 실제적으로 단련해야 합니다.”⁹⁶⁾

다른 데에서 이렇게 역설한다. “지금이 곧 불을 다시 지필 때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과 다음 예수 성탄을 위하여, 죽을 정도의 열정을 지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야 합니다.”⁹⁷⁾

또 다른 서간에서는 “서로의 결점들을 참아주고 참된 겸손과 애덕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큰 열정으로 성체를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가난, 정결과 순명의 서원을 실천함으로써, 점점 더 우리의 신심업을 쌓아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나의 착한 딸들,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⁹⁸⁾라고 쓴다. 이런 표

95) 편년사 III 223.

96) 편지 47, 7.

97) 편지 24, 8.

98) 편지 52, 2.

현은 성녀가 한결같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생각들이고 하나의 사상을 다지는 권고이기도 하다. 바로 영적 재촉에 붙잡혀 사는 성녀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녀의 카리스마는 오직 한 가지에 대한 재촉이라고 할 수 있다.

2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 마리아 영성



“... 마리아의 학교에 있는 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거룩하신 아드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걸작이신 성모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한[...] 여러분의 수도회 안에 관대함과 헌신, 내적 생활과 열심, 성덕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협력자들로 만들었던 은총의 그 샘이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오로 6세, 도움아신 마리아의 딸들에게 1972년 7월 15일

1. 살아있는 기념비

돈보스코와 마드레 마자렐로의 카리스마의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요소 중에서 마리아의 신비는 창립자들의 정신과 삶 자체를 에워싸고 관통한다. 구체적인 표현, 살아있는 육화로 나타난 마리아의 신비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의미깊은 영적 유산이다.

수도회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명명될 뿐 아니라 마리아를 위한 마리아의 것이며, 돈보스코의 명백한 의지에 따라 감사의 살아있는 기념비가 된다.

기념비라는 명칭은 정靜적인 것으로 무엇인가 완성 되어진, 고정된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운동이나 활력, 삶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돈보스코는 기념비 앞에 ‘살아있는’ 이라는 말을 붙인다. 이는 만들어진 즉, 돌로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 넣는, 다시 말하면 내적인 힘으로 팽창해 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기념비는 형상을 주고자 하는 한 위대한 인물, 한 이상理想의 육화인 동시에 자기 내부에서 재생시키고 실현하고 재현하고 싶어한다.

그 이상,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돈보스코의 모든 사업의 영감자이며 창립자, 어머니이며 스승이신 마리아이시다.

그러므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은 자신들 안에 성모님을 재생시키고, 그 얼굴의 선들을 모방하면서 충실하게 닮은 꼴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녀들에게 일으키셨던 카리스마적인 부르심의 힘으로 그것을 펼쳐내야 한다.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는 살아있는 모상들에 대해 단순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말하곤 하였다.

마리아 '형상'은 성인 창립자의 카리스마 자체에서 솟아나온 본래의 계획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FMA의 존재 이유이며 카리스마적 특성이다.

FMA의 마리아 영성의 본질은 모두 여기에 있다. 마리아는 FMA의 존재와 행동의 형상이어야 한다. 모든 FMA는 마리아의 정신을 본받도록 불리웠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해서만이 세례의 최상 목적인 그리스도께 대한 그 '순종'에 이르기 때문이다.

1927년, 하느님의 종, 돈 리날디는 그의 귀중한 생활지표로 이같은 창립과 성소에 대한 임무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수도회를 창립하면서 돈보스코의 생각은 수도회 안에 있는 모든 수녀가 마리아의 충실한 닮은 꼴이 되기를, 수녀를 보는 사람들이 그녀는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신 마리아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활동했었다!’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원했다. [...] 그러므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착한 수녀들은 할 수 있는 한, 보나 큰 완전함으로 마리아의 덕들을 자신들 안에 베끼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덕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순결, 끝없이 깊은 겸손, 영웅적인 희생정신 특히 근면한 선함이다.”¹⁾ 이

1) RINALDI Filippo, FMA에게 발표한 1927년 생활지표

런 덕들로 우리 자신 안에 마리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마리아를 산다는 것은 성모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생각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 안에 더욱 완전하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마리아의 존재와 삶이 우리 안에도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성모님의 모든 것은 거룩하신 아드님에 비하면 ‘상대적’이지만, 그분의 사명은 언제나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를 낳아 주는 위대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마리아의 것이 되어 마리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속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수에넨스 추기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의 것이지만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덧붙일 수 있다. 우리가 마리아의 것이 되면 될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다.

돈보스코, 마리아 마자렐로는 바로 그러하였다. 탁월하게 마리아적이고 열렬하게 성체적인 영혼들이었다.

오직 마리아께 대한 이런 순종을 완전히 실현함으로써만 딸들은 ‘도움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감사의 살아있는 기쁨비’가 되고 성인 창립자 돈보스코에게 그렇게도 소중했던 창설 계획이 충만하게 실현될 것이다.

2. 감사의 기념비

돈보스코가 계획했던 ‘살아있는 기념비’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성모님께 대한 성인의 크나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감사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다. 기념비 즉, 마니피캇에서 흘러 나오는 영광의 찬미가를 계속하면서 마리아 안에서 하느님의 크심을 세세대대로 노래하게 하는 기념비이다.

마니피캇 정신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의 정신이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기쁨으로 용약하는 순수한 정신적 충동이다.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끝없는 관대하심 앞에서 피조물은 기쁨과 숭배의 전율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하느님에 관한 것 즉, 그분의 부성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고 감사로 가득 찬 종교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성 바오로에 의하면, 이교도들의 ‘변명할 수 없는’ 죄는 “하느님께 영광도 감사도 드리지 않는 것이다.”²⁾ 이는 형언키 어려운 하느님의 부성애를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에게도 죄가 있다.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인간적인 것으로만 둘러싸인 채 닫혀 있다. 그 닫힌 곳에서 그들은 비이

2) 로마 1, 21.

성적이고 포악한 투쟁으로 악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로지 죄악, 중오심, 폭력만을 끌어들이고 있다.

마니피캇의 정신은, 불행히도 존재하는 악을 모르는 체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은혜로운 무상적 활동의 결과로써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이 모든 피조물 안에서 발산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열중케 한다.

이와 같은 정신은 건전한 낙천성을 가진 정신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놀라운 찬가를 통해 복되신 마리아께 생기를 불어 넣었던 정신이다. 또 쉽지 않은 사명 안에서 그리고 생애의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돈보스코를 지탱해 주었던 그 정신이다. 이 정신은 자신의 하찮음과 무능한 가난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솟아나온 것이다.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왔음을 그리고 하느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에 자신을 놓아 드리면서 그분께만 맡겨 드리는 정신이다.

하느님을 향한 희망의 꽃과 열매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찬미, 영광으로 터져 나온다. 각 사람과 피조물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 앞에서 폭발하는 황홀 상태는 성체적 은총의 활동에 일치하여 그분께 기쁜 증거를 하게 한다. 그리하여 삶에, 거룩한 전례의 깊고 경건한 의미를 선물한다. 말할것도 없이 거룩한 전례는 하느님을 최상의 목적으로 모시고 있지만, 돈보스코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마리아께 대한 공경을 들어 올려 거행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은 마리아께서 돈보스코를 통해 돈보스코 안에서 일하셨던 모든 것을 기쁘게 인식하고, 복되신 동정

녀처럼 작고 겸손한 이들이 밑으로써, 자신들을 마리아께 대한 찬미
 의 마니피캄으로 변화시키며, 감사를 응화시킨다.
 • 창립자의 역사와 수도회의 역사 안에서 복되신 동정녀의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중재를 끊임없이 사기한다.
 • 창립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머니의 스승이
 신 마리아를 바라본다.
 • 모든 것을 성모님의 모성적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자녀적
 인간감사의 마음과 공경으로 마리아 신처를 일깨운다.
 • “하느님 안에 기뻐 뛰기 위해 그분의 정신을”(성 안토니오) 소화
 흡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열정을 몸받는다.
 • 특히 젊은이들이 성모님을 더 존수하고 더 높은 여성성의 표
 본으로, 그들을 경청하고 묵기위해 온전히 귀 기울이시는 탁월한 친
 구이시며 보살피시는 어머니로 알고 사랑하게 한다.
 • 모든 존재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진정한 마리아 여성성을 본
 표로 삼는다. 하느님과 마리아께 드리는 찬미의 마니피캄, 즉 구체적
 인간감사의 표현을 한다.

3. 마니피캇 정신

마니피캇의 정신은 영혼들 안에 오시는 하느님 나라 도래의 조건인 복음적 ‘마음의 가난’을 요구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우는 정도에 따라 은총을 주신다.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녀의 선택은 언제나 희망과 마음의 개방, 충만한 자유로움 속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거는 보잘것 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사실,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줄 알고 자신들의 가난을 의식하며,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무상의 선물이요 ‘모든 것이 은총’(베르나노스)임을 확신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음의 가난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보다 진실한 것이 된다. 겸손, 이탈, 자기 성실로 나타나는 이 가난은 돈 보스코에 대한 마리아의 총애를 끌어 당겼던 가난이며,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고 고백했던 마리아 마자렐로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가난이다. 가난은 하느님의 선물에 마음을 열게 하고 그분을 알 수 있게 하며, 하느님의 너그러우심에 감사드리게 하고, 성화시키시는 분의 신비스러운 활동에 자유로이 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성과 본성은 하느님의 계획에 여과기를 갖다대는 일을 중지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계

희를 환영하고 실현한다.

입술에 오르는 말은 마리아의 말과 같은 것이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³⁾ 돈보스코도 그랬고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도 그랬다.

마니피캇의 정신은 봉사의 정신, 봉헌의 정신, 전폭적인 순명의 정신, 한없는 헌신의 정신이다. 도움이 필요했던 사촌 엘리사벳 노부인을 향해 아인-카림의 길로 복되신 동정녀를 서둘러 밀었던 그 정신이다.

사도직에 불린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은 이러한 봉사, 순종, 헌신에 불린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사도직 안에서 젊은이들에게 완전히 제공하는 봉사는 억제, 곤궁, 한계를 모른다. 오직 하나, 하느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둔다. 영혼구원 즉, 돈보스코의 위대한 핵심 사상에 의해 조정되고 지탱되었던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 것은 다 가져가라’이다.

마니피캇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품고 엘리사벳을 찾아 가셨던 복되신 동정녀 방문의 신비를 행동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빛과 은총을 가져가는 것이다. 빛은 엘리사벳에게 신적 모성애의 신비를 비춰주었다. 은총은 요한을 변화시키고 그의 어머니 태중에서 기뻐 뛰놀게 하였다.

모든 사도직 활동은 이렇게 비춰주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하느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올 수 없고, 그리스도를 모셔가는 이가

3) 루카 1, 38.

사도가 되지않으면 뿌릴 수 없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FMA는 선물형식으로 예수님을 품고 가는 마리아, 도움이신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도움이신 마리아는, 성령께서 교회에 맡기신 구원의 보편적 사명 안에, 당신의 딸들을 개입시키면서 사도직 봉사에 교회의 카리스마를 새겨주신다.

돈보스코를 관통하고 지탱했던 고유한 삶과 사명의 교회적 감각은 FMA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카리스마의 한 면모이다. 도움이신 마리아께 속하면서, 교회의 어머니의 특유한 임무를 인식하는 딸들의 마리아 영성은, 주관적인 내면생활 속에만 갇혀 있을 수 없으며, 구원 신비의 보편성으로 열려야 하고, ‘도움이신 이’와 함께 ‘돕는 이’가 되게 하는 활동적인 그 실천으로 옮겨가야 하는것이다.

4. 성모님께서 여기,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딸들의 마리아 영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은 돈보스코와 마드레 마자렐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현존에 대한 살아있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돈 비가노가 단언하기를 이 ‘현존’은 “성덕의 신비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시작과 변화와 성장의 과정 안에 그리고 구원과 내적 생활과 임무가 되는 모든 것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⁴⁾라고 하였다.

도움이신 마리아 딸들은 자신들을 특징짓는 마리아의 이런 빛나는 현존을 위하여 교회 안에 독특하게 개입되어 있다. 그들의 역사와 삶 안에 계신 마리아는 당신의 딸들을 통해, 그들 안에 살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인 창립자 돈보스코는 그의 생애가 전개되는 모든 것 안에서 마리아의 직접적이며 신비스러운 계시 활동을 통해 이 현존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리아의 현존을 살고 그분께 가까이 가도록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곤 하였다. “마리아를 사랑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은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화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4) VIGANO Egidio, 육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로마 FMA 1978) 62.

입니다.”⁵⁾ “한 사람이 혼자서는 조금 밖에 할 수 없지만,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⁶⁾ “우리를 보호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도움이신 마리아를 모시는 큰 행운을 가집시다.”⁷⁾

그는 우리 집들의 환경 안에서도 마리아의 이 현존을 민감하게 알아보았다. 1885년 8월 23일,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닛자 몽페라토 집에서 있었던 계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는 총회의 장상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고 요청한 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해줄 것을 마라고 있습니다. 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지!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제 늙은이, 기울어져 가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이 들지요. 그러나 말해야겠지요. 성모님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여기,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와 동행했던 돈 보네티가 감격해 하는 그를 두둔하면서. “네, 고제! 돈보스코는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어머니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네요.”라고 말하였다.

“아, 아니오! — 성인은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 — 성모님께서 정말 이 집에 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만일 여러분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정신으로 계속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감격은

5) MB V 655.

6) MB XII 578.

7) MB XIII 407.

돈보스코를 다시 압도했고 돈 보네티는 다시 말하였다. “네 그냥! 돈 보스코는 여러분이 항상 착하다면, 성모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많이 만족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라니까요! — 성인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모님께서 실제로 여기, 여기 바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구요! 성모님께서 집안을 산책하시며, 당신의 망토로 이 집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두 팔을 펼치면서 눈물 젖은 눈동자를 위로 들어 올렸는데, 성모님께서 당신 집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보호하시려고 집 위로 그의 망토를 펼치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음을 알아듣게 하려는 것 같았다.⁸⁾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는 적지 않은 열정으로 착하신 어머니의 시선 아래 살았으며 계속적인 현존을 딸들에게 상기시키곤 하였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매사에 성모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합시다.”⁹⁾ 그래서 모르네세의 바드레 엔리케타 소르보네는 “마치 성모님이 눈에 보이게 계시는 것처럼, 그분의 매우 부드러운 시선 아래 살았다.”라고 고백하였다.

이 모성적 현존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마리아가 되도록 자극한다. 돈보스코가 원했던 기념비가 되기 위해, 딸들은 복되신 동정녀의 얼굴을 닮음으로써 살아있는 돌이 되도록 촉진된다. 모성적 현존은 도움이시며 공동구속자이신 성모님의 구원

8) 편년사 V 55 참조.

9) 편년사 III 310 / 회헌(1982년 판) 444쪽.

「회원」이 또 우리에게 말한다. “마리아께서 우리 삶 속에 현존하신
를 느끼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우리는 마리아의 신
앙, 희망, 사랑 및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와 자세를 우리 것으로
하고, 특히 소녀를 사이에서 마리아처럼, ‘맡는 이’가 되기 위하여
마니피캄의 기쁨에 찬 경순에 열릴 것이다.”¹⁰

신하는 것이다.
참겨 드림으로써 그분에게서 빛과 위로,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을 화
물 내놓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아픔, 어려움, 민족, 기쁨을
다. 살아 계신 분으로부터 출고 받고 인도 받으며 자신을 형성시키도
마리아께서 땅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들어오실 필요가 있
의 만년’이 있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제인했던 것처럼, EMA와 마리아 사이에 끊임없는 ‘시선들
타르드 수도원장이었던 저 위대한 마리아 신사가, 성 베르나르도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땅들은 이런 현존을 증언하게 살아야 한다. 조
의 존엄성을 본받을 것이다”¹⁰¹

는 사도적 활동에 헌신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
다. 마리아처럼 ‘맡는 이’의 진복을 생화화하고 희망을 가져다주
신 동정녀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관상할 것이
새 「회원」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한다. “우리는 원죄 없으신 도음이
사명의 역동성 안에서 땅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현존은 실제로 '형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조금씩 FMA 안에 기록하신 동정녀의 영적 얼굴의 선들이 새겨지면서, 마리아 마자렐로가 간절히 염원했던 성모님의 그 참된 모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참된 모상은 마리아의 살아있는 '이콘'을 만들어 낼 것이다.

3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 마리아 영성의 모델인 마리아 마자렐로



“가경자는 마리아의 딸들에게 있어 본보기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시선과 지도로 전개되고 펼쳐지는 한 생애 안에는 무엇인가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비오 11세, 담화 1936년 5월 3일

1. 마리아 마자렐로의 영성 법칙

마리아 마자렐로는 돈보스코에 의해 도음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간사의 참여는 기쁨비의, 포옹이 룰로 선택되었고 그의 삶을 가까이에서 배움으로써 자신의 자세와 삶 속에 스며들게 했던 성녀이며 FMA의 마리아 영성 자제를 문명화한 창시자이다.

그녀의 영적 생활의 단순성과 인간성 안에서 우리는 그녀가 육화의 법칙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음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는 단지 역사적이고 실체적이며 인화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육화 사건에서 출발하여 그 위에서 모형을 취하고 그를 통해 실현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은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육화시키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육화시키고 그분을 본 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일하시며 사도의 참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됨으로,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 그분으로 살아가지, 더 나아가 그분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가 되도록 맡겨 드리는 것 이외의 다른 뜻이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는 마리아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써 역사적 실재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말씀의 육화를 자신 안에 본을 받아 실현하신 피조물이다.

크나큰 신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화’ 된 성모님은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통해 완성해야 할 말씀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실제로 육화시키기 위하여 본받아야 할 분이시다.

마리아 마자렐로는 매우 긴급하고 단념할 수 없는 육화법칙의 요구를 느꼈으며 또 그것을 그녀의 영적 생활의 규범으로 삼았다.

성모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존재와 활동의 ‘형상’을 성모님 안에서 찾아내면서, 복되신 마리아의 자세를 자신의 태도 안에 육화시키는데 혼신을 다하였다. 이것은 마리아 영성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깊은 의미가 숨겨진 감각이다. 그녀의 단순하지만, 함축성 있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 “우리는 성모님의 참된 모상입니다.”²⁾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원죄 없는 잉태에서부터 ‘은총이 가득 차게’ 까지 만드셨던 완전한 피조물이다.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는 우리처럼 특혜 없는 피조물이었지만, 하느님께 대한 생생한 탐구와 성덕에 대한 깊고 근면한 갈망으로 활발히 움직였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보다 가까이 가기 쉬운 이상으로서 마리아를 앞에 모신다.

감상이나 상상의 프리즘을 통해 마리아를 바라보지 않고 복음의 페이지들을 통해서 신앙의 빛으로 그분을 바라본다. 절제된 그 페이지 속에서 마리아의 신비가 드러나는데, 단순성, 겸손, 잠심, 하느님과의 일치, 근면, 희생, 전폭적인 헌신 등으로 드러난다.

사랑은 복되신 동정녀께서 평범한 삶을 섬세함으로 변모시키신 깊은 자세들을 마차렐로에게 보여준다. 신앙은 그녀에게 삶에 보조를 맞추고 승화시키는 신비들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신앙은 또한 살고 일하는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육화의 법칙은 그녀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쉽게 형성시켜주는 마리아의 형상으로 밀고 간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주물의 틀鑄型’이라 부른다. “이 주형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 안에서 형성되고 조형되신다. 최소의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하느님神化이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시켰던 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³⁾ 성 그리뇽 몽포르가 해설한 위대한 아우구스티노의 이 대답한 확언을 그녀는 몰랐지만 사실 그렇게 살았다.

3) GRIGNION DI MONTFORT, 신심서 185 /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최영철 옮김 190.

자극히 복되신 마리아는 하느님께 관계없는 모든 것에 닫힌, 곧 아가의 관해진 정원" 이시다. 잘못 이 때문에, 하느님께 온통 열려 있고 그분께 대한 관상 속에 완전히 몰두해 있으며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한 개방의 자세이다.

우리에게 인상적인, 마리아의 첫 번째 자세는 하느님께 대한 완전 고점근하는 것이다.

신을 보아보자. 중요한 것은 다만 마리아의 비월에 큰 존경심을 가지 대한 공평하고 빈약한 관상 안에서 일기라도, 드러나는 사실들에 우리의 빈곤한 인간적인 분석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크나큰 신비에 뭇까?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분명히 또 많은 부분이 애의 절정이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복되신 동정녀의 자세는 어떠한 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마리아는 주님 탄생예고이다. 당신 생행로는 이 원전에서 영감을 받는다.

있는 확실한 원천으로써 참으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마리아 마자 복음은 복되신 동정녀의 생애에 관하여 절제된 많은 내용을 담고

주님 탄생예고 : 개방, 절정

2. 마리아의 삶과 신비 안에서

사랑에 온전히 매료되어 있다. 전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거주하는 ‘은총이 가득하신’이라는 상태는 하느님 은총의 모든 빛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이러한 내적 순응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마리아 마자렐로는 단순함 속에 있었음에도, 복되신 동정녀의 이 특혜적인 자세를 알아채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온 힘을 다한다. 하느님께 대한 탐구, 그분을 향한 갈망들을 우리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발견할 수 있다. 사실, 그녀가 아버지에게 했던 질문은 놀라운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그녀 안에는 하나의 요구, 더 잘 말해서 하느님을 알려 주는 성령의 충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리에 대한 마자렐로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도 있다. “교리는 그녀의 즐거움이었다.”라고 편년사는 말한다. 모든 인간적인 교육에 희생된 지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 생애를 동반하게 될 하느님의 매력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속에 영원토록 깊이 들어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녀는 축일에 가는 것처럼 교리 반에 달려가곤 하였다. “하느님으로 목 말랐던 그녀는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을 더욱 잘 알고 싶어 하였다.”⁵⁾

그녀의 마음 안에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모든 것에, ‘달한 정원’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조금만 말하십시오. 피조물과는 아주 적게, 그러나 주님과 많이 말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정말 슬기로운 사람

5) 편년사 I 39.

으로 만드실 것입니다.”⁶⁾ 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내적 침묵은 하느님을 향한 개방을 전제로 한다. 그녀 안에도 영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생명에 까지 솟아오르게 하는 살아있는 그 샘물’⁷⁾이 용솟음 치고 있다.

「마코노」는 “그녀는 하느님에 대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섭리에 대해 자주 말했으며, 그녀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화 중에 한 성녀를 느끼게 해주는 인상적인 부드러운 말과 큰 열정을 보여주었다.”⁸⁾고 기록한다. 영을 밝히고 채워주는 이런 내적 빛은 그녀의 인격을 빛나게 했다. 한 수녀가 증언하기를 “마드레를 보면 하느님을 보여주는 한 영혼을 보게 된다.”⁹⁾ 고 하였다.

주님 탄생예고의 신비에서 복되신 동정녀의 두 번째 자세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의심과 마음을 집중하는 경청이다.

「마리아 공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마리아는 “신앙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경청하시는 동정녀”¹⁰⁾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은 하느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 단 한 번도 청하지 않으셨던 가장 큰 요구적인 말씀이었다. 그것은 구원하는 강생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써, 모든 두려운 결과들을 지닌채로 어머니가 되라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당혹스런 놀람 속에서도 큰 겸손함으로, 불투명한 어둠 속에서도 위대한 신앙으로 경청하신다. 성모님은

6) 편지 19, 10.

7) 요한 4, 14. 참조.

8)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 422.

9) MACCONO, 정신 69.

10) 마리아 공경 17.

완전히 이 경청 속에 계시는데, 그것은 그녀에 대한 하느님의 전적인 지배, 그분의 불가해한 계획을 충만히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마리아 마자렐로는 하느님 말씀의 신비스러운 매력에 끌렸고 이런 경청의 자세에 의해 지배되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를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 하느님의 빛살과 같은 것이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도 정신을 맑게 해 주고, 마음에 좋은 감정을 불러 넣어 주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선업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¹¹⁾ 이것이 바로 그녀의 생각이다.

신심 깊은 경외심으로 말씀을 듣고, 자신 안에서 묵상하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신에 기억시키려고 그녀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초대한다.

이에 대한 많은 증언이 있다. 「마코노」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규칙에 따라 정해진 시간으로 한계를 두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가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하느님과 일치하면서 묵상을 계속하였다.”¹²⁾

그것은 사도직 과정들 속에서도 증명되었다. “그녀는 강론이 자주 있도록 배려하였고 [...] 주의력을 가지고 강론을 들으라고 부탁했으며, 오락시간에는 들었던 강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불러 일으키곤 하였다 [...]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조언하기도 하였다.”¹³⁾

11) 편년사 III 318.

12) MACCONO, 정신 35.

13) 사도직 과정 159.

그녀가 자신의 삶의 길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던진 의미 있는 작은 질문들은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던 물음들이긴 하지만, 말씀을 심화하고 자신들을 성찰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 순간에 무얼 생각하지요? 오늘 아침묵상을 아직 기억하세요? 그리고 결심은?”¹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나요?”¹⁵⁾

그녀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청하도록 자신과 더불어 수녀들을 준비시켰다. “우리는 아콥의 우물가의 시마리아 여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 마르지 않게 예수님께 그 생명의 물을 청해야 합니다.”¹⁶⁾

그녀는 영혼을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말씀이란 우리의 이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원천에서 길어 올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은 바로 주 그리스도님이다. 말씀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말씀은 천사를 통해 기록하신 동정녀가 듣도록 하였고, 동정녀는 흠숭하을 경청의 침묵 속에서 성령의 사업에 완전히 응답함으로써, 유일하고도 반복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을 잉태하였다.

마드레 마자렐로는 그 강생의 신비가 우리를 비추고 고양시키며 움직이게 하는 내적 말씀이 되기까지, 곧 하나의 살아있는 복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변모시키는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 삶과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14) 편년사 II 136.

15) 상동.

16)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II 86.

탄생예고 : 확고한 신앙, 완전한 순종

복되신 동정녀께 전해진 천사의 말은, 말씀의 강생이라는 유례없는 가장 놀라운 소식이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¹⁷⁾ 이것은 그녀의 온 생애를 전복시키는 말이었고 모든 과정을 변모시키는 말씀이었다.

동정녀께서는 부여받은 은총의 빛으로 이런 알림의 모든 깊이와 높이를 측정하신다. 한 저자가 묻는다. “어떻게 그녀가 모든 여인 중에서 자기 홀로 선택되었음에도, 자만하여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으며 또 자신 안에서 일어난 칭찬벽력과도 같은 사건에 쓰러지는 일도 없이 하느님의 메시지와 사업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¹⁸⁾

그런데, 은총이 가득하신 동정녀께서는 불굴의 신앙 안에서 또 하느님께 대한 전폭적인 포기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은 평화 속에서 전대미문의 신비를 받아들인다. 모든 당혹과 의문들을 초월하고 상식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어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¹⁹⁾ 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는다. 크나큰 신비 앞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비범한 자세는 새로운 것이며 생생하고 확고한 신앙의 자세이다.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는 성령의 빛으로 성모님의 이 놀라운 자세

17) 루카 1, 35.

18) SCHELKLE K. H., 주님의 어머니 (Citta Nuova 1970) 64.

19) 루카 1, 37.

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정신에 새겨넣는다. 그녀의 생애 안에서도, 정직하고 열심한 한 시골처녀의 평범하고 진진한 삶의 흐름을 흔들어 놓았던 메시지와 초대들이 나타난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 돈 페스타리노는 모든 인간적 차원을 넘어, 그녀에게 발진티푸스로 병든 친척들을 간호하도록 명령한다. 생명과 힘이 넘치는 스물세 살의 그녀는 포도밭 일에서 남자들을 능가할 정도였지만, 악은 대단한 독소를 가지고 그녀를 움켜잡아, 한 그루 떡갈나무처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서 무기력하게 만든다. 무분별하고 경솔한 행동의 모든 분위기를 떠 안는 많은 위험에 노출된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그녀를 새로운 길 위에 올려놓는 하느님 섭리의 한 선택적인 행위가 되었다. 그녀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게 될 길이 있었다. 그녀는 정신적인 완전한 응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만을 알고 싶어 한다.

관대하게 자기 자신을 봉헌한 후 처음으로 본당에 갔을 때, “주님, 만일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저에게 몇 년 더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제 삶의 날수를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도록 해 주시고, 당신 외에는 모든 이로부터 잊혀 지게 해 주십시오.”²⁰⁾ 라고 한다. 이는 신비스러운 초대에 대한 내적 음성이 그녀의 정신 속에서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여자 아이들의 선익을 위해 완전히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다.

20)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I 83-84

그녀는 불확실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맞아들인다. 양재기술을 배우고, 양재소를 연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을 위한 작은 기숙사, 그 다음엔 드디어 축일 오라토리오가 생겨난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젊은이들의 사도인 토리노 사람, 보스코와 같은 삶의 길 위에서 있었다.

1864년에 이르러서야 돈보스코와 첫 만남이 있었는데, 성녀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깨달음을 주는 성령과의 일치로 인하여, 즉시 그의 성덕을 알아본다. “돈보스코는 성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²¹⁾

이 첫 만남부터 그녀는 복되신 동정녀께서 돈보스코에게 암시하셨던 월대한 계획의 완성으로 데려갈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바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창립이다.

계획이 성숙해감에 따라 우리 성녀를 새롭고 전혀 예기치 않은 초대 앞에 세우게 될 것이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수도가족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나아가 성모님께 대한 돈보스코 성인의 감사로 세워질 ‘살아있는 기념비’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걸음걸음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의 생애는 사람과 상황의 중재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들로 채워져 갔다. 그 메시지들은 신앙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었고, 단계적으로 그녀를 인간적인 온갖 계획에서 거리가 먼 어떤 한 계획의 실현으로 인도해 간다. 완전히 신적인 계획의 인장, 그러나 도움이신 동정녀의 손길이 부족하지 않은 하느님 계획의 인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21) 같은 책 149.

주님 탄생예고의 신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깊은 신앙에 연결된 특징적인 내적 자세는 그녀의 절대적인 순종이다. 그 순종은 '주님의 종'임을 선언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²²⁾

한 저자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이의 정도를 끌어 올려 밝혀 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기란 어려운 일"²³⁾이라고 말한다. '여종'임을 스스로 선포하면서, 마리아는 운명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녀에 대한 하느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들인다. 마리아의 권리들은 온전히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의 결정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마리아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는 남김 없고 한계 없는 내어드림으로 하느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가난한 이', 복되신 동정녀께서 최고의 가난과 함께 하는 행위이다.

이 순종을 실현시키는 피약으로 마리아는 "묻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토론하지도 않지만, 깊은 신뢰로 주님이시며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분의 손 안에 자신을 맡기는 위대한 영혼"²⁴⁾으로서, 신비롭고 비옥한 영적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신다.

우리 성녀의 정신적 기본자세는 참으로 마리아의 자세와 닮았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며, 배정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여종' 자세이다.

작은 교리서 공부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지배권의 충

22) 루카 1, 38.

23) LARRANAGA I, 마리아의 침묵 (로마 Ed. Paoline 1980) 67.

24) 같은 책 68.

에 대한 성실하고 깊은 자각이며 위대한 겸손이다.

는 기록하신 동정녀와 같은 것이다. 동정녀의 청빈, 보잘것없는 자식은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이런 순응의 뿌리이지 않았고 의무감에서 하였으며, 하느님께서 승인하지 않는 것이 노력하였다. 무엇이든지 그녀가 하면 결코 결코 인간적인 목적으로 움직임을 모시고 있었고 작은 것에 있어서도 그분의 뜻을 완수하려고 수녀들이 또 단언한다. “그녀는 다양한 임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이여 마침까지로 작은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였다.

마리아처럼, 그녀는 하느님의 뜻에 겸손한 순명으로 따르고, 큰 것에 뜻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를 하기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²⁵⁾ 순종했다. 무슨일이든지 그녀에게 반대되는 일이 발생해도 하느님의 마드레 엔리케타 소르보네가 증언한다. “그녀는 하느님의 뜻에 참 주님의 모든 배치에 대해 조건없는 아멘, 피맛을 받하게 되는 것이다.

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어떤 것을 잡거나 슬프거나 기지 못한 일일지라도 어떤 사건이든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남에게 전폭적이고 완전한 자유로 계속 자신을 봉헌하게 되고, 가장 예 이런 관점에서 마리아 마지멜로를 바라보고 통찰할 때, 우리는 하느하고 지속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다.

순종의 묵화이다. 이 순종의 묵화는 자기의 온 존재로 하느님께 자신을 아낌 없이 주었다. “나는 너의 주 하느님이다.” 그녀의 온 생애는 이 만하고 절대적이며 전폭적인 인정인, 첫째 계명의 정신속으로 깊이

1936년 5월 3일, 영웅적인 덕행들을 선포하면서 교황 비오 11세는 역설한다. “가경자의 생애에서 잘 알려진 특징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위대한 겸손은 그녀의 것입니다. 정녕, 하나의 충만한 의식 그러니까 그녀의 비천한 출생, 낮은 신분, 보잘 것 없음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기억을 말합니다.”²⁶⁾

「마코노」가 이렇게 썼다. 마드레 마자렐로는 장상이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당황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짧은 편지 한 장 쓸 줄 모르고, 선으로 지도할 줄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장상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²⁷⁾

전기, 편년사와 편지들을 통해 보면, 꽤 자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에 자신이 무능력자임을 공언하는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그녀의 존재와 활동의 유일한 원인으로 생각했던 하느님께 대한 그 봉사의 정신으로, 맡겨진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짊어지고 갔다. 자신의 비천함을 인식하면서, 항상 복음적 메시지의 결론적인 말씀, 즉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뿌리깊이 확신하였다.²⁸⁾

방문의 신비에서

하느님의 신비에 맡긴 복되신 마리아께서는 자신 속에 감혀있거나, 자기 안에 완수하고 있는 막중한 신비 속에 숨어있지 않고, 오

26) 비오 11세, 담화 1936. 5. 3.

27) MACCONO, 정신 266.

28) 루카 1, 37.

히려 일상적인 삶의 현실에 평온하게 열려 있다. 복음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급한 움직임으로’²⁹⁾ 도움의 필요성을 직감한 마리아께서 사촌 엘리사벳을 향하여 마뻘 서두르시는³⁰⁾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도움을 청하지도 초대받지도 않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침투된 사랑이 그녀를 떠밀어서 옮겨간다. 하느님께서는 마음 하나를 소유하시면 그것을 당신에게 동화시키시고 당신의 본성이며 존재인 그 사랑을 발산하신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³¹⁾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 가신다. 당신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라기보다 관대하게 준비된, 섬세한 봉사로 늙은 사촌에게 자유롭게 내어주기 위해서이다. 마리아 영혼의 이 깊은 자세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준다. 천사에게 ‘주님의 여종’이 선포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안에 계시면 서도 봉사를 받으시는 것이다.

피조물 안에 계신 하느님을 섬기려면 더 큰 신앙, 더 깊은 겸손, 더 관대한 사랑이 요구된다. 피조물 앞에서보다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기는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피조물인 마리아 안에는 대립도 단절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 안에 이미 예수님의 기도가 메아리친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29) P. ANASTASIO del SS. Rosario, 피정 강좌 (로마 1968) 187.

30) 루카 7, 39

31) 요한 4.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³²⁾

엘리사벳 집에서 복되신 동정녀의 친절한 임무가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기회에 하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피조물이신 당신의 우아한 감수성에 비길만한 배려와 섬세함으로 극히 작은 일, 아주 작은 사건, 가정생활의 세세한 것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보잘 것 없으며 깊은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었다.

마리아 마자렐로는 이미 그녀의 젊은 시절에, 특히 임마꼴라파 회원으로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도자요, 어머니요 장상으로서 자기 직무 안에서, 성모님의 삶을 사는 복음적인 이 섬세한 그림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의 전기 작가가 쓴다. “그녀는 딸들에게 매우 훌륭한 어머니였는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고상하게 된 착한 마음과 상식으로 가득 찬 어머니였다. 바람을 넣거나 권위를 결코 무겁게 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을 보고, 예상하고, 배려하였다.”³³⁾ 그녀는 권위가 곧 섬김이라는 복음적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였다.

우리는 수 많은 증언들을 가지고 있다. 초기 선교사 중의 한 사람이 이렇게 쓴다. “그녀는 의지적인 힘으로 매우 세련된 부드러움과 사랑을 합치시킬 줄 알았다. 그녀를 보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수녀회의 시련 초기에, 특히 청원자들이나 다른 이들의 필요와 괴

32) 요한 17, 21.

33) MACCÓNO, 정신 387.

로움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들일 줄 알았다. 그녀는 청원자들이 성소에 응답하면서 해야 할 선행을 알려주고, 확고해지도록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며 섬기고 도우려고 자신을 다 내놓았다.”³⁴⁾

그녀 곁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마드레 엔리케타 소르보네도 단언한다. “낮과 밤 어떤 시간이라도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었다.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두드러진 희생을 하였으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늘 애덕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녀는 희색이 만면하였다.”³⁵⁾

수녀들이 증언한다. “그녀는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보았고 이웃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리고 기숙생과 수녀들, 모든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도록 끈기 있게 가르쳤다.”³⁶⁾ 주님을 보고, 그분께 부지런히 봉사하였으며 사랑과 주의 깊은 배려로 하나의 흠송행위를 수행하였다.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 자매들에 대한 사려 깊고 사랑스러운 섬김에 열린 그녀 안에는 방문의 동정녀께서 살고 계셨다.

그러나 방문의 신비는 아직 하나의 봉사이기 전에, 하느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기쁜 계시의 신비이다. 엘리사벳은 주님의 복되신 어머니와의 만남 때문에, 천사의 알림에 마리아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신앙 때문에, 그리고 선구자 아기 요한이 그녀의 태 안에서 즐거워 뛰놀았던 은총 때문에 하느님을 축복하면서 마리아께 이 경이로움을

34)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 365.

35) MACCONO, 정신 138.

36) 상동.

노래한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³⁷⁾

엘리사벳을 위해 마리아는 마음이 용약勇躍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의 충만한 환성인 마니피캇을 노래한다.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웅대하심을 온전히 들어 높이는 영원으로 가득 찬 노래이며,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 나라의 돌입을 우리의 시선으로 표명하는 해방과 구원의 노래이다.

마리아의 내적 자세는 주님께서 당신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탈흔적 기쁨의 자세이다. 영광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시고, 어머니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하여 마리아께서 자신의 선언적인 가난을 통해서 모든 세기의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초대하신다.

그러므로 마니피캇은 마리아 가까이에 우리를 두는 부르심이며, 마리아의 기쁨과 계시는 곧 우리의 기쁨이요 계시이기에 성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기”³⁸⁾ 위한 것이다.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는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안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이런 부르심을 느낀다. “마리아의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이 하느님 안에 용약하기 위하여”라고 대 암브로시오 성인이 말하듯이, 마리아 마자렐로는 성모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37) 루카 1, 45.

38) 요한 3, 1.

그녀는 매우 신앙 깊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 주신 것, 세례성사와 다른 성사들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영적 지도자 돈 페스타리노를 통해서 숙련된 안내를 해 주신 것, 돈보스코와의 만남, 그리고 복되신 마리아께서 원하신 수도회 안에서 받은 수도봉헌이라는 예기치 않았던 선물 등,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 전기 작가가 쓰기를 수도 서원의 날, “마리아 수녀는 가슴이 고동치는 크나큰 기쁨을 간신히 억제하면서, 동료들에게 성녀들이, 그것도 큰 성녀들이 되자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³⁹⁾고 하였다.

「편년사」가 메모한다. 자매들과의 식탁 나눔에서 “늘 해오던 대로 [...] 마리아 마자렐로 수녀는 유쾌하게 떠들어대는 시끄러움을 잠재우면서 그녀의 독특한 열정으로 ‘찬미, 도움이신 마리아!’ 라고 외친다.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은 유쾌한 감사의 찬가를 누구에게 올려 드려야 할지를 알고 있다.”⁴⁰⁾

하느님과 성모님께 드리는 이 찬가는 그녀의 마음 안에서 멈출 줄을 모른다.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의 말은 “공로와 자격이 풍부한 다른 이들과는 달리 성모님의 화관이 되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보잘 것 없으며 무식하다는 것이었다.”⁴¹⁾

39)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 206.

40) 편년사 | 336.

41) 편년사 II 34.

많은 은총에 대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그녀의 감사는 이렇게 깊이 있고 살아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주 수녀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수도생활에 불린 것에 대한 행복을 날로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께 감사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이토록 베푸시는 은혜들에 대하여기서부터 주님께 자주 감사합시다.”⁴²⁾

죽음의 침상에서도 하느님께 올려 드리는 것은 감사였다. “오 주님, 예수님의 정배로서 그리고 마리아의 딸이며 돈보스코의 딸로서 죽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요!”⁴³⁾

하느님께 드리는 이러한 찬미는 그녀의 온 생애에 걸친 노래였으며, 자매들도 거기에 결합되기를 열망한다. “나의 딸들, 마음을 드높이!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화제를!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분만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살아갑시다!”⁴⁴⁾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가난한 자’임을 느꼈던 그녀는 완전한 헌신과 사랑이 담긴 삶으로 하느님께 찬미의 마니피캇을 노래하였다.

하느님께서도 그녀를 통하여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영혼들 안에 당

42) 편년사 III 298.

43) 편년사 III 401.

44) 일상의 과정, 172-173.

마리아의 온 생애는 신앙의 여정이다. 조스라첸 것 같은 천사의 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사람들, 그녀의 수녀들을 알고 있습니다.”⁴⁶⁾

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원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녀의 이름, 칭을 단순함을 끌어보셨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세대가 저를 복되다 일컬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저의 비천함, 저의 리아 마자렐로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마자렐로도 이렇게 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 “마리아의 빛 안에서, 그 빛으로 공경하를 마한 마드레 마자렐로를 통하여, 온전한 영적 위대함을 들어 들어 란라고 권고하였다.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옆에 우리의 겸손 그래서 비오 11세는 마자렐로 성녀로부터 경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문”⁴⁵⁾로 특징을 이룬다.

화하면서 그분의 현존을 느낀 필요성을 수용했던 놀라운, 신화적 일 한 일상적인 탐구, 믿음을 경청하고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 더오 종장이 될 강조했던 것처럼, 포르네세 정자는 곧 “하느님에 관 영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뛰어난 열정의 정신을 기록하였다. 돈 에지 를전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포르네세의 정신과 같이, 역사에 남을 에, 세 차례나 선교사들을 파견함으로써 수도회가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 성덕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성녀의 아홉 해의 짧은 수도생활 기간 신의 경이로움을 드러내셨다. 거의 모든 수녀들이 혼자 앉게 수중 돌

님 탄생예고 앞에서의 신앙, 요셉의 고통스러운 의심 앞에서의 신앙, 베들레헴을 향해가는 불확실하고 괴로운 길에서의 신앙, 우주의 창조주를 위해 자리 하나 구하지 못함에서의 신앙, 예수님의 탄생에서 결코 들어본 적 없는 겹손과 가난 속의 신앙, 늙은 시메온의 어둠에 싸인 예언적인 말에서의 신앙, 이집트로 가는 믿을 수 없는 피난 속에서의 신앙이다. 성부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구해내실 수 없었을까?

성전에서 예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태도와 신비스러운 말씀 안에서의 신앙, 나자렛에서 예수님의 삼십 세의 희미함 속에서의 신앙,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의 신앙, 예수님의 공생활에서의 신앙, 갈바리 오 위에서의 영웅적인 신앙,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여정이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조차도 그 어둠의 베일을 벗기고 한계를 활짝 열지는 못하였다. 그분 역시 '신앙의 나그네 길'⁴⁷⁾에 있는 우리 모두처럼,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신비를 발견하셨던 것이다. 기로岐路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길을 지나면서, 그리고 평화로운 길에서 만난 어둠 앞에서 그분은 하느님의 당혹스러운 뜻과 일치하려고 노력하셨다.

복되신 마리아의 깊고도 조용한 놀람의 자세에 관하여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⁴⁸⁾고

47) 교회헌장 58.

48) 루카 2, 19.

말한다. 하느님의 계획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예배하고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사려깊고 사랑스러운 숙고로써 말씀, 일, 사건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의문을 품지 않고 하느님의 정당성을 연구하지도 않으며 문제들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하지만, 완전히 순종하고 충실히 침묵속에서 받들어 모신다.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헤아릴 길 없는 신비속에 완전히 잠기는 위대한 관상가로서 강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

신앙의 길은 믿는 아들의 길, 성인들의 길이다. 그리고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의 길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으로 살면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그녀의 진로를 바꾸어야 했던 전환점에서,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전적인 포기의 정신을 살기 위하여 마리아께 눈을 고정시키고 달려간다.

수녀들이 증언한다. 그녀는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 마드레 엔리케타 소르보네의 말을 들어보자 — 그 신앙은 “그녀의 시선, 말, 행동, 모든 것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녀의 모든 행동과 일들’⁴⁹⁾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신앙의 빛으로 삶의 온갖 사정, 상황, 사건들을 멀리, 넓게 바라보고 전폭적인 순종으로써 타협 없이 곧바로, 거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깊이 탐색하였다. 병약한 친척들을 도와주라는 돈 페스타리노의 초대에 즉시 응하였고, 그에

49) MACCONO, 정신 37.

따른 중병이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았으며, 회복기에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로써 하느님께 향하였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영광에 자신을 완전히 바친 사랑의 사도처럼 열정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 뜻을 받아 안았다.

그녀가 속해 있었던 임마쿨라파 회원들과 공동생활을 시작할 즈음, 마을에서 더욱 계략적이고 집요한 비난들이 일어났을 때, 신앙은 그녀를 밝혀주고 지탱해준다. 자신과 타인을 달래면서 평온과 강인함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놔두세요. 우리는 성인이 되기로 힘씁시다.”

임마쿨라파 회원들 가운데서 생겨난 불화를 잠재우기 위한 돈 페스타리노의 갑작스런 명령으로 그녀는 발포나스카로 추방되었다. 여자 어린이들에게 전념하고 있었던 일에서 그녀를 빼내었을 때 그녀는 오직 침묵 속에 은거한다. 이를 친구 페트로닐라가 증언한다. “결코,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나중에도 돈 페스타리노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시련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그 이유와 그 모든 고통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기는 했지만.”⁵⁰⁾

이 고통의 침묵은 그녀가 성모님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시련은 그녀를 은총, 풍요로운 의미, 충만, 다산성, 영적 성숙의 순간으로 변모시키면서 신앙 안에서 단단해지도록 해 주었다. 신앙은 그녀에게 임마쿨라파의 집에서처럼, 기숙학교 내의 수도생활 초창기에 호된

시련이었던 그 극심한 가난을 영웅적인 강인함으로 받아 안게 하였다. 그리하여 베들레헴, 이집트, 나자렛과도 흡사한 가난 속에서 성모님이 원하셨던 놀라운 사업을 뿌리깊이 내린다.

모르네세 사람들이 관대한 희생과 큰 열정으로 신축한 기숙학교의 목적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견잡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을에 퍼져 나가고 예리한 비판들이 마리아 마자렐로 수녀를 겨냥하여 퍼부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평온하고 흔들림 없이 자매들을 격려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쳤지요, 그리고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이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성인들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합니다.”⁵¹⁾

아무리 신랄하고 날카로웠어도, 가련한 인간들의 음성은 그녀의 꺾인 줄 모르는 신앙의 성채에 부딪혀 부서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에게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⁵²⁾ 이렇게 마음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 올랐으며 그분의 사랑스러운 계획에 완전히 자신을 일치시켰다.

어려움은 굴곡을 가져온다. 주님은 당신 성인들의 길을 평탄케 버려두지 않으신다. 오히려 날이면 날마다, 마음을 잡아 찢었던 사망자

51)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194.

52) MACCONO, 정신 225.

에게도 이것을 터득하도록 꾸준하고 인내롭게 가르쳤다.

로그렘이었으며 그녀 스스로 이 프로그램대로 살았다. 그리고 평등
 순수한 지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⁵⁴⁾ 이것이 그녀의 프
 그문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만 만족하시도록
 그분을 따라갑시다. [...] 예수님께서 이 내를 더 요구하시는 이들은
 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인내롭게 견디며
 것을 원하십니다. 고통을 겪는 데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최초의 사람
 를 인도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
 려버려 바라보게 하였으며, 삶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그녀
 은 그녀에게 그 모든 일에 관한 의미를 밝혀 주었고 성서적인 측면을
 충실하신 동정녀처럼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⁵⁵⁾ 신앙
 그 대신 하느님의 손길이 땅도를 나누었다.

서원으로 받아 안을 줄 알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몰라지 않았다.
 마드레 마지렐로는 자기의 근원과 위험, 역설 속에서 복음을 수도
 한 것이었다.

정우처럼 증상적인 신전, 땀으로 늘 위협받는 그녀의 건강 등으로 인
 세에서 떨어져 나와야 했던 고통스러운 이별, 히브리인 베다리아의
 한 사람들, 몇몇 사람의 마음 아픈 변질, 수도회의 요람지인 모르네
 심베니와 같이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유혹했던 악의와 기이
 들의 축출로 시련은 더 혹독해지는 것 같았다. 그 유명한 아고스티나

성녀는 이같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처럼, 신앙의 어둡고 가끔은 혼란스러운 길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고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용기를 내세요 — 딸들에게 말한다 — 일, 희생, 고통, 생명, 죽음은 천국의 영원한 환희와 약속된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여기서는 수고로움, 그곳에는 휴식, 여기서는 고통, 그곳에서는 즐기게 될 것입니다.”⁵⁵⁾

55) MACCONO, 정신 49.

3. 마리아 형상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의 마리아 영성의 깊은 의미와 종합은 그녀 자신이 정한 분구, “우리는 성모님의 참된 모상입니다.”⁵⁶⁾ 라는 표현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딸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제시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성녀는 소녀 시절 초기부터 성모님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이를 실현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갈망을 지니고 살았다. 이것이 마리아께 대한 그녀의 전폭적인 헌신속에 담긴 충만한 의미이다. 실제로 성모님의 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형성시켜야 할 분으로서 마리아를 전 생애에 걸쳐 정면에 모시고 있었다. 자신의 본질과 내적 요구를 포착한 그녀는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그리스도 형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실제로 사랑하는 것, 삶의 이상인 마리아를 실현하는 것, 마리아의 것으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처럼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던 것이다.

덕의 영웅성을 선포할 때, 비오 11세가 칭찬했던 것처럼 그녀는 ‘마리아의 모범적인 딸’이 되어, 마리아적 특성을 자신의 온 존재와 삶, 행동 안에 새김으로써, 마리아 신심의 참되고 깊고 실제적인 의

56) 편년사 III 223.

미를 터득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교회원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와 같이 내적인 자세, 영적인 이음구미를 반영시키고 성모님을 모화되기 위하여 “뽀힌 이들의 온 공동체에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고 계시는 마리아를 바라본다.”⁵⁷⁾

거룩하신 동정녀는 온우주의 세계, 신성한 경이로움의 다함 줄 모르
는 세계이시다. 교부들로부터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 특히
교황 바오로 6세는 그의 경탄한 만한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성모님을 우리 눈앞에 모시기를 권면 하였다. 57항에서 그 위대한 교
황은 우리에게 복되신 마리아의 매우 아름다운 초상화를 제시하였다.
다름 또 하나의 훌륭한 초상화는 비범하고 사신적인 성서함으로
묘사된 것이다. 최근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더불어 성모님을 만
하기 위해, 교회의 대 교부 성 암브로시오에 의한 「동정성에 관하여」
를 살펴보자. 이는 교회에서 토리노 방문 때(1980. 4. 13) 도음이신 마
리아 대성당에서 수녀들에게 제안한 내용이다.

틀라노의 대주교 성 암브로시오가 우리에게 소개한 복되신 마리아
와 우리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를 대조하여 읽어보자. 이는 몇몇 관점
아래 성녀의 마리아 형상에 대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
다. 여기, 성 암브로시오가 복되신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한다.

“마리아께서는 몸으로만 아니라 영혼으로도 동정이었다. 정신의 순수
함을 더럽히는 온갖 속임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고 마음이 결손하
셨다. 과묵하고 생각에 신중하며 람에는 절도가 있었다. [...] 그 끝은 단신

의 희망을 부자의 불확실함에 두지 않고 빈자(貧者)의 기도에 두셨다.

항상 부지런하셨다. 이야기를 간직하셨고, 양심의 관관이신 하느님을 탐구하는데 익숙하셨다. [...]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셨으며,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셨다. [...] 허영을 피하고 이성을 따랐으며 덕을 사랑하셨다. [...]

이것이 동정성의 상(像)이다. 마리아께서 완전하신 것만큼, 오묘한 그분의 삶만이 모든 이를 규제 한다.”⁵⁸⁾

성 암브로시오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관찰해보자.

마리아는 몸으로만 아니라 영혼으로도 동정이셨다.

마리아의 동정성은 사랑의 충만성을 표현하고, 자신을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는 그분과의 유일하고 예외적이며 전체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의 표시이다.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 그녀의 기대, 지주, 기쁨, 정당성이며 그녀가 존재하고 사는 이유 자체이다. 하느님 섬김에 대한 그녀의 전적이고 배타적인 순종의 표시이다. 자기 존재 위에 하느님의 절대적 다스림에 대한 깊은 자각을 지닌 선포된 가난의 표시요, 하늘나라의 삶을 앞당긴 새로움의 표시이다.

마리아 마자렐로는 소녀 시절부터 탁월하게 마리아의 덕행에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이성적 계산으로 지나치게 염려하는 일 없이 서원의 합법적인 내용을 정결 서원으로써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온전한 피조물로서 그녀는 하느님만이 그녀에게 유일하고 모든 것이라

58) Sant' Ambrogio, 동정성에 관하여 II 2, 6-7.

는 것을 느꼈으므로, 철저하고 배타적인 방법으로 그분께 자신을 바친다. 그분만이 그녀 인생의 유일하고 살아있으며 생명의 현존이 되는 것이다. 동정성은 그녀를 감싸고 몸과 정신 속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빛을 발산하였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하느님을 발산하곤 했어요.” “순결한 한 송이 백합이었어요. 그리고 이 덕에 대해 말할 때 그녀 자신이 변모되는 것 같았어요.”⁵⁹⁾

몬시뇰 코스타마냐가 확실하게 말한다. “처녀다운 순결을 지닌 향기로운 한 송이 백합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스런 본능’을 자신 안에서 연마했기 때문에 이 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들까지도 알아보았다.⁶⁰⁾ 그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녀의 생각, 마음, 태도의 순결무구한 발산이었다.

칼리에로 추기경은 말한다. “그녀는 처녀다운 신중함을 자신의 얼굴표정과 천진함속에 드러내었다. 정숙함은 그녀의 동작과 시선, 위엄 있는 행동들을 통해 드러나곤 하였다.” 수녀들이 증언한다. “매우 침착한 태도와 충만한 사리분별”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도복은 매우 정갈하였고 담화는 아주 섬세하였으며 항상 눈을 절제하였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에서 천사적 순결의 우아함이 늘 나타났다.”⁶¹⁾

칼리에로 추기경이 또 단언한다. “그녀 안에는 구세주의 말씀이 확인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

59) MACCONO, 정신 255.

60) MACCONO, 정신 259 참조.

61) 상동.

이다.’ 마음의 순결은 그녀를 영혼의 순결에로 인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순결하고 애정이 순결했으며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과 함께 했던 그녀의 모든 활동이 순결하였다.”⁶²⁾

성 암브로시오가 계속한다.

정신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온갖 속임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고

하느님의 진정한 투명체라고 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온전히 진리 안에 있으며 또한 충만한 진리가 되신다.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시는 하느님의 진리도 그녀를 절대적 단순함을 지닌 피조물로 만들어 당신께 동화시키시는 것이다.

마리아의 눈 앞에는 하느님 밖에 없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그녀 스스로 당신께 대한 갈망, 당신 말씀에 대한 경청, 당신 뜻에 대한 일치, 당신 판단 안에서의 안정, 당신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전적인 포기를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대단히 빛나는 수정처럼 맑은 마리아는 “하느님과 구원의 전체적 신비를 우리에게 현존시키고 투명하게 한다.”⁶³⁾

마리아 마자렐로도 마리아처럼, “정신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온갖 속임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 교황 비오 11세의 말씀을 빌리면, 하느님 종의 특징을 나타냈던 단순함은 그녀를 복되신 동정녀처럼 “찾아보기 드문 방식으로”, 하느님의 투명체가 되게 하였다. 그것은

62)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II 235.

63) LARRANAGA, 침묵 99.

바로 순백한, 순수한, 성실한, 진실성의 전부, 완전한 참됨이다.

그녀가 참을 수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다면, 솔직함이 부족한 태도였다. 「마코노」가 기록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엄격하였다.”⁶⁴⁾ 그의 펜과 입술 위에 아주 쉽게 되돌아오는 권고는 ‘단순함과 솔직함’⁶⁵⁾ 이었다.

「편년사」는 말한다. “자애심의 책략과 불쾌한 결과들을 다른 사람 위에 덮어 씌우려는 경향을 견디지 못하였다.”

이런 탈선을 거슬러 복음적 맛을 지닌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다른 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⁶⁶⁾ 솔직함, 순수함, 단순함은 또한 죽음의 침상에서도 딸들에게 부탁했던 매우 집요한 요청 중의 하나이다.

마음이 겸손하셨다.

「교회현장」이 우리에게 말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신뢰로 주님께 구원을 바라고 받는 주님의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빼어난 분이시다.”⁶⁷⁾

소스라치게 놀라운 천사의 예고에서 그녀는 주님의 여종임을 선포하고, 마니피캇에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던”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찬양한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영에 따라 실제로 가난

64)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 122.

65) 같은 책 361.

66) 편년사 III 154.

67) 교회현장 55.

하셨다. 왜냐하면, 그녀의 정신은 주님의 여종이 지닌 참된 정신 즉, 숨은 겸손, 평범한 삶, 미소함, 가난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녀에게 실현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 광채, 영광이며 또한 그분의 사랑과 전능의 표시였다.

마리아의 겸손을 독특한 완전함으로 빼닮은 한 성녀가 있다면, 우리는 과장하지도 않으면서 과감하게 우리 성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시복조사에서 한 수녀가 증언한다. “겸손은 하느님 여종의 삶에 있어서 명백한 특징이었다.”⁶⁸⁾ 그것은 육화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겸손은 그녀의 감수성이고 자신의 품행과 행동의 노선, 무^無와 가난함에 대한 솔직하고 깊은 인식이었다. 겸손은 그녀 자신이었다. “스스로 낮추는 것 외에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라고 칼리에로 추기경이 증언한다.⁶⁹⁾ 한 수녀가 덧붙인다. “겸손을 교회받기 위하여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 또 다른 수녀도 “겸손을 단련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수녀도 그녀에게 필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⁷⁰⁾ 라고 덧붙인다.

이런 뛰어난 겸손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녀의 겸손은 지나칠 정도였다.”⁷¹⁾ 라고 까지 말한다. 옷 입을 때, 처신할 때, 부당한 불평을 들을 때 겸손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부당하고 꼴찌”⁷²⁾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겸손이었다.

68)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II 227.

69) 같은 책 222.

70)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II 222.

71) 상동.

72) 같은 책 227.

장상이었음에도 그녀가 일에, 수고에, 자기를 내어주는데 모든 이의 종이 되었던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성실한 겸손이었다. 장상이 되었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회 안에 자기를 있게 해주는 것에도 놀라워 하였다. 친구 마드레 페트로닐라는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를 내보내지 않고 수도회 안에 있게 해주는 것을 주님께 감사 합시다.”⁷³⁾

과묵하고 생각에 신중하셨으며 말에는 절도가 있으셨다.

마리아의 신비는 역사와 삶에 가치를 주고 그것들을 요약하는 지극히 차원 높은 침묵의 신비이다. 마리아를 완전히 감싼 침묵은 매우 적은 말들로 깨진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탄생예고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⁷⁴⁾ 성전에서 아드님을 잃었을 때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⁷⁵⁾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구나 [...].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⁷⁶⁾이다.

P. 아나스타시오가 쓰는 것처럼, 그녀가 성령으로 용약하여 마니피캄으로 하느님을 찬양할 때를 제외하고는 “단음절로 산다.”⁷⁷⁾ 고 말할 수 있다.

73) 같은 책 226.

74) 루카 1, 38.

75) 루카 2, 48.

76) 요한 2, 5.

77) P. ANASTASIO,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처럼, FIR 사무국 감준 (토리노 1978).

성 암브로시오가 말하듯이, 참으로 “과묵하고 생각에 신중하셨으며 말에는 절도가 있으셨다.”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는 거룩하신 동정녀의 이런 감탄할 만한 신중함을 뚜렷이 반사한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적게 말하고 아주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피조물과는 적게, 피조물에 대해서는 아주 적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⁷⁸⁾ 그녀의 규범이었다.

마자렐로는 사려 깊고 입이 무거웠으며 대단히 신중하였다. 아무것도 그녀를 피해가지 못하였고 “그녀의 시선이 — 몬시뇰 코스타마냐가 단언 한다 — 하느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크고 확실하였다.”⁷⁹⁾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소견과 올바른 주의를 주는데도 그녀의 뛰어난 공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다. 몬시뇰 코스타마냐가 또 증언한다. “보르네세에서는 확실히, 그녀가 이것은 잘 안됐고 저것은 더 낫게 해야 한다고 주의 주는 적이 여러 번 있었다.”⁸⁰⁾ 한 수녀가 확언한다. “비록 조금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성인들의 학문으로 가득 찼으며 매우 현명하고 유익한 충고를 주곤 하였다.”⁸¹⁾

심베니의 혼란스러운 사건에 대해 마드레 마자렐로가 돈 칼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희극’이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나 어떤 압박으로 인해 항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음에도 즉시 사건을

78) 편지 19, 15.

79)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II 280.

80) 상동.

81) 상동.

분명하게 볼 줄 알았던 것이다.

그녀의 말은 항상 적절하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돈 체루티가 증언하기를, “판단력의 은혜를 가졌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특히 영적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종 마리아 마자렐로와 같은 정도의 그런 지도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소수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항상 문법에 따르지도 않았지만, 참으로 드문 신중함, 판단력, 분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⁸²⁾라고 하였다.

긴 이야기보다 그녀의 말은 마음 깊이 새겨들을 적언들과 질문들로 되어 있었다.

“매일 저녁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의 딸아, 나는 너에 대해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일하십시오.” “일하는 중에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영원을 위해 이익이 될 것인가?” “항상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고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더라면 좋았을까?”라고.⁸³⁾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지혜의 스타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잠언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놀라지 마라. 이는 말씀하시는 동일한 성령이시다.

자신의 희망을 부자의 불확실함에 두지 않고 빈자^{貧者}의 기도에 두셨다.

주님의 진정한 빈자,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충만성에 모든 것을

82)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II 238.

83) 같은 책 I 384.

저셨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자신의 아들과 가난의 행복을 서로 나누면서, 베들레헴과 이집트에서보다도 더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나자렛의 가난을 기쁘게 사셨다. 그곳에서 완전한 개방을 통해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해방의 힘을 받는다. 확신에 찬 기도 안에서, 인간적인 상황의 신비스런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그분께 기대하고 또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으신다.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는 ‘복음적 가난의 초상화’⁸⁴⁾, 아니 ‘인격화된 가난’⁸⁵⁾이라고 불렸다. 필요한 것이 부족할 정도로 드러나는 가난의 모든 결과를 기쁘게 짊어지고 갔다.

“모르네세 집은 — 마드레 에밀리아 모스카가 기록하였다 — 몹시 가난하였다. 음식이 적은데다 변변치 못했으며, 수고는 많고, 매일의 빵을 벌어야만 했다. [...] 그럼에도, 몸의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고,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궁핍과 결핍을 깨닫지도 못하는 [...]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 마자렐로 수녀님의 모범에 의해 고취되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신분을 어떤 여왕과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⁸⁶⁾

그 곤궁 속에서 우리의 성녀는 “항상 유쾌하고 만족했으며 고통을 겪는 것은 짧지만, 즐기는 것은 영원하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명랑하게 붙들어 주었다.”⁸⁷⁾ 마리아처럼 충만한 자유로 하느님께 온전히 방향을 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확실한 희망을 걸었다.

84) MACCONO, 정신 293.

85) 같은 책 294.

86) 같은 책 287-288.

87) 같은 책 294.

마리오 6세는「마리아 윤경」에서「삶의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복되
신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일치하였다.”⁸⁹⁾
고 말한다. 그러면, 삶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기난, 피로움, 피난과 유배를 알았던”⁹⁰⁾ 한 가정의 결속한 여인, “우
리의 자매이며 동료인 그녀 역시 이 땅의 시민이었었고 우리와 같이 불
행상 부지런하였다.

코에게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⁸⁸⁾
위대한 스승님이시고, 스승님의 정신은 우리의 착한 아버지 도보스
하십니다. 원천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구세주께서 우리의
부탁합니다. 더 나은 인력화 가운데서도 실제로 사명하기를 계속
아 받음 태세의 정신으로 사용하십시오.
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함과 응분의 못한 결과를 잘 참
요구하는 곳에 물건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사
분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어떤 침착도 갖지 마십시오. 준비이
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어진 물건을 사용하면서도 여러
여러분에게 제공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가난하게 사십시오. 정신적
수 있는 것인데, 모성적 열려가 나타난다. “제발, 평들이여, 수도회가
인력화는 그녀를 격정시켰다. 다음 말은 그녀의 유언이라고 말한

은 길을 걸어가셨다.”⁹¹⁾ “고통하고 일하고 참으며 우리의 지상경험을 사셨다.”⁹²⁾ 비천하고 숨겨지고 주의 깊으며, 부지런한 일의 체험은 한 가족을 존속시켰던 것이다.

복되신 동정녀는 무기력한 멈춤을 모르셨다. 그분의 삶은 기도, 일, 헌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예수님 곁에서, 그리고 태동하는 교회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삶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일하시는”⁹³⁾ 하느님 아버지께 일치된 마리아는 끊임없는 근면함의 모범이시다.

이 모범에서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는 영감을 받았다. 힘이 넘치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일일 고용 노동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그녀에게 자제할 것을 부탁할 만큼 지치지 않는 근로자였다.

양재소 생활에 부지런하고 수도생활에도 근면하여 단 일 초라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고 열려하였다. 그녀의 끈질긴 부탁이다. “자매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일을 합시다. 한 순간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의 주인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실 뿐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삼십 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에 한 시간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일, 희생을 보시기 위해, 또 제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현

91) 바오로 6세, 담화 1968. 8. 15.

92) 바오로 6세, 담화 1965. 8. 15.

93) 요한 5, 17.

존하십니다.”⁹⁴⁾

“일이 활기차도록 훈련하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활기차게 하세요. 한 수녀가 일에서 활기차면 정신에서도 활기찰 것입니다.”⁹⁵⁾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은 씨구려 수녀가 되지 말아야 하고 많은 일을 하는 수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떼 지어 나타나는 나쁜 폴들을 뿌리째 뽑기위해, 일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일로써, 빵을 벌기 위해서든 배우기 위해서든 제 때에 육체의 빵을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영혼의 구원을 안전한 곳에 둘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데 한 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⁹⁶⁾

그녀의 부지런함은 마리아에게서 보이는 성스럽고 성화 시키는 근면성이었다. 양재소를 시작할 때 제시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했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였다. “바느질 한 뼘마다 하느님 사랑의 행위가 되기를!”

이야기를 간직하셨고

지극히 깨끗하시고 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아드님을 관상하실 때 완전히 잠기시는 위대한 침묵의 여인은 한 마디 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말씀이 살이 되셨다. 주님에 관한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말할 것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말씀은 내용과 진리의 충만함을 가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다.

94) MACCONO, 정신 318-319.

95) 같은 책 320.

96) MACCONO, 정신 320.

그런데 복음은 — 우리가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 복되신 동정녀의 극히 적은 말들을 우리에게 인용한다. 그리고 그 적은 말들은 모두 예수님과 관계 있거나 혹은 예수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모든 이를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수님께 향하는 말들이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입에서는 빛, 진리와 사랑의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넘치도록 가득 찬 충만을 전달하는 말들이다.

마리아 마자렐로는 마리아께 눈을 두고, 그분의 생각과 말과 태도의 순결한 특징들을 자신 안에 반영시켜야 할 의무로 느끼며 산다.

“그녀의 말은 — 칼리로 추기경이 증언한다 — 결백한 마음, 순수한 생각, 정결한 애정을 간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신중함과 엄격함으로 표현되었다.”⁹⁷⁾ 거룩하신 동정녀처럼, 그녀의 정신 내면에 살고 있는 순결과, 그녀를 완전히 감싸고 꿰뚫어 소유하는 하느님의 투명체가 되게 하는 그 현존을 반사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항상 보다 섬세한 순결의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계몽적인 말이었다. 수녀들이 증언한다. “담화에서 그녀는 매우 섬세하였고 동시에 이 녀의 실천을 끈덕지게 가르쳤으며 말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였다.”⁹⁸⁾

아버지로서 돈보스코는 그녀가 그늘진 것에 중요성을 두기보다 아름다움을 더 많이 조명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순결을 지키기 위한 수

97)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234.

98) 같은 책 232.

단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의 걱정스러운 권고로 결론을 내린다.
“요컨대, 돈보스코께서 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모님의 참된 모상들
입니다.”⁹⁹⁾

양심의 판관이신 하느님을 탐구하는데 익숙하셨다.

당신에게만 알려진 강생의 신비 속에서 복되신 마리아께서는 성부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신다. 당신 안에서 실현된 것을 필요할 때 밝히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느님 개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흠숭적인 침묵속에 자신을 담으신다. 그리하여, 요셉의 고통스러운 의심 앞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고요하고 침착하시다.

당신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만드시는 이런 하느님 체험을 깊이 하시는 것이다. 온전히 당신을 소유하시는 하느님 외에 땅 위의 다른 나머지 것들은 대수로울 것이 없었으며 정말로 무의미한 것들이었다.

마리아의 안전은 양심의 유일한 최고의 판관이신 하느님의 확고한 ‘바위’에 기초를 두었고, 시편작가와 더불어 노래하면서 평화 속에 머무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¹⁰⁰⁾

마리아 마자렐로 그녀에게도 조롱과 중상, 인간적인 부당한 판단과 마음 아픈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비방의 화살들이 여러 상황에서 줄어들지 않았었다. 친구 페트로닐라와 함께 양

99) 편년사 III 223.

100) 시편 117, 6

제소를 열었을 때부터 함께 살기로 했을 때까지, 그리고 소년들을 위해 건축 되었음에도 예기치 않게 그녀들에게 바쳐진 기숙학교를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내뿜는 비방은 더욱 심해졌었다. 이런 상황은 돈보스코가 임마쿨라타 그룹을 진짜 수녀들인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로 바꿀 때까지 그러하였다.

돈보스코도 그 점을 지적 하였다. “여러분은 마음 아파하고 있지요. 나는 내 눈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비웃으며 여러분의 부모들까지 등을 돌린다는 것을!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오, 나의 사랑하는 딸들,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학대받는 것에 대해 불쾌해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은 새로운 사명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¹⁰¹⁾

마리아의 학교에서 마드레 마자델로는 “비판에 대해 감내와 침묵으로만 맞서는 법을 배웠다.”¹⁰²⁾ “모욕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다.”¹⁰³⁾라는 문장으로 살았다. “늘 침착하였고 — 마코노는 말한다 항상 도와주실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모든 이 안에 불어 넣었으며 깊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내할 것을 부탁하였다.”¹⁰⁴⁾

101)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델로 204.

102) 같은 책 215.

103) 같은 책 216.

104) 같은 책 273.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 수녀들이 증언한다 — 마음의 평온과 고요함을 보존하였으며 열심히 모든 이를 위한 의무에 전념하였다.

어려움 중에 결코 정신을 내려놓지 않았다. 항상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으며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였다.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으며 그것을 무식한 사람처럼 하지 않고 마치 사제처럼 매우 효과 있게 하였다.”¹⁰⁵⁾

그녀는 「편지」에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합시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만 우리 일에 대한 보상을 기다립시다.”¹⁰⁶⁾라고 썼다. “언제든지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일하세요.”¹⁰⁷⁾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목적으로 일하세요.”¹⁰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힘든 일들을 맡겨 드리세요. 그분께서 하시도록 놓아 드린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조정하실 것입니다.”¹⁰⁹⁾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셨으며,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셨다.

“사랑이신 하느님”¹¹⁰⁾을 빼어나게 닮은 사랑의 피조물, 마리아는 선행과 자비로움, 연민과 모든 이에 대한 보살핌과 같은 육화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보여주려 오셨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불린”¹¹¹⁾ 자비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다.

105) MACCONO, 정신 226.

106)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1 57.

107) 편지 19, 19.

108) 편지 20, 4.

109) 편지 22, 3.

110) 요한 4, 8.

111) 요한 바오로 2세, 자비로우신 하느님 9.

「교회현장」이 단언한다. “은총의 계획 안에 있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성은 주님 탄생의 예고에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십자가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셨던 그 동의에서부터 모든 땀 흘린 이들의 영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된다.”¹¹²⁾ 그러므로 마리아는 우리 앞에 하느님 사랑의 표지로 계신다.

마리아 마자렐로는 우리의 거룩하신 어머니를 이렇게 보았으며, 동정녀 안에서 빛나는 그 모성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육화시키려고 온 생애를 통해 있는 힘을 다하였다.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도움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지 않은 자매나 사람이 없었을 만큼 — 마드레 다게로가 증언한다 — 그녀는 사랑이 많았다.”¹¹³⁾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다.”¹¹⁴⁾ “자기의 온 생애를 이웃의 선을 위해 바쳤고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였다.”¹¹⁵⁾

칼리에로 추기경이 확증한다. “그 어떤 것이 가치가 더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다.”¹¹⁶⁾ 모든 이를 품어주고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며 누구에게도 감정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랑은 그녀의 권고의 말과 편지 안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112) 교회현장 62.

113)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I 198.

114) 같은 책 199.

115) 상동.

116) 같은 책 200.

여기 그녀의 말이 있다. “큰 애덕을 가지세요, 서로 사랑 하세요.”¹¹⁷⁾ “너그럽게 보아주고 모든 이에게 애덕으로 대하십시오.”¹¹⁸⁾ “진짜 성녀가 되세요. 그러나 자신과 이웃에게 사랑 가득 찬 그런 성녀들 중의 하나가 되세요[...].”¹¹⁹⁾ “여러분, 제게 좀 말해 주세요. 여러분은 모두 사랑합니까? 서로서로 애덕으로 대하세요?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를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은 서로서로 모든 애덕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할 것입니다.”¹²⁰⁾

허영을 피하시고

여인들 중에 가장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복되신 마리아께서는 유일무이한 사명을 위하여 선택되셨다. 메시아의 어머니는 하느님 안에 완전히 잠긴 침묵의 신비로 온통 둘러싸여 있었다.

나자렛에서 멀리받는 사민, 비천한 여인들과 함께 사셨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으셨고 위대한 랍비, 기적을 행하는 분의 어머니로서 드러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갈바리오에서 수행자, 파산자, 사형수의 어머니로서 다시 나타나시는

117) 편지 20, 2.

118) 편지 22, 2.

119) 편지 23, 10.

120) 편지 24, 10.

것을 볼 뿐이다. 마리아는 침묵과 겸손의 옷을 입으신 피조불이시다.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도 겸손의 옷을 입었다. 그녀는 항상 그늘 속에 있었다. 그녀의 작아짐, 무無의식을 갈고 닦았으며, 누군가 그녀의 뜻에 대항할 때도 빼어난 샹데리아(가지가 있는 촛대) 위에 놓여 있었다.

항상 모든 이의 마지막이라고 느끼고 표명하였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요청을 하지요, 그러나 제가 모든 이들보다 더 열등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불쌍한 무식꾼이고 말할 줄도 몰라요,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세요.”¹²¹⁾

장상이라는 이유로 무엇인가 그녀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는 저는 누구인대요?”¹²²⁾라고 반문했다.

편년사는 말한다. “그녀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어떤 어조도 띠지 않았다. 양재소 안에서, 등받이 없는 작은 길상이나 혹은 계단 위에 앉는 그의 사랑스러운 습관을 견지하면서 자매들의 말을 경청하고 올려주고 선으로 자극하였다.”¹²³⁾

한 졸업생이 증언한다. “태도와 말에서 아주 겸손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다른 사람과 대할 때 거만하게[...] 혹은 우쭐한 분위기로 말하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¹²⁴⁾

121)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 308.

122) 같은 책 II 146.

123) 편년사 II 390.

124)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222.

이성理性을 따르셨으며

「마리아 공경」이 말한다. “탄생예고 때, 하느님과 대화에서 임무를 받은 마리아는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동의를 하신다.”¹²⁵⁾ 사려 깊은 힘으로 자신의 막중한 책임을 헤아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 참으로 부드러움과 평온함으로 즉시 응답하신다.

하느님의 신비 속에 깊이 잠긴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본성과 이성의 인간적 요소들의 바탕에서도, 탁월하게 중용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창조물이시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공경」에 의하면, “동정 신분의 선택은[...] 폐쇄적인 선택(아무런 인간적 가치가 없다)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느님 사랑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봉헌하기 위하여 달성한 용기 있는 결단이 었다[...]. 수동적으로 순종만 하거나 배타적인 종교심을 지닌 여인이 결코 아니라, 하느님은 비천하고 억눌린 이들을 돌보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자리에서 내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데 의심치 않았던 여인이 시다.”¹²⁶⁾

마리아 마자렐로는 건전한 불편심不偏心和 이성적인 것, 인간적인 깊은 감수성, 뛰어나게 실천적인 상식을 지닌 여인이었다.

자연적인 가치의 이런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그녀는 참으로 완전한 여성이 되었으며, 비오 11세가 매우 행복한 표현으로 ‘통치의 달란

125) 마리아 공경 37.

126) 마리아 공경 37

트'라고 불렀던 그 재능이 성녀 안에서 두드러진다. 그 위대한 교황님이 단언하였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녀는 저명한 돈보스코, 곧 사람들과 사물들을 깊이 통찰했던 돈보스코와 같은 사람이 이 드물고 귀중한 달란트를 즉시 알아보고 활용할 만큼 통치의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소유한 것을 드러내었다.”¹²⁷⁾

돈보스코도 그녀의 통치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언하였다. “마드레 마자렐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교육에다 자신의 덕들을 풍부하게 보충할 줄 압니다. 신중함과 식별정신, 선함에 기초한 통치에 대한 천부적인 소질, 애덕과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입니다.”¹²⁸⁾

증언들은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해 준다. “그녀는 혼치 않은 분별력을 타고났다. 모성애적인 은혜와 지혜로운 방법을 가진 통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보고 딸들의 선과 악을 예견했으며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신체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항상 배려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¹²⁹⁾ “수녀들의 육체적, 지적, 윤리적 힘들을 헤아린 공평한 모성적 분별로 그들에게 직무들을 분배하였다.”¹³⁰⁾

「편지」들 안에서도 이 성스러운 이성이 드러난다. 한 원장 수녀에게 쓴다. “... 결점들이 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고쳐주고 낮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나머지

127) 비오 11세, 담화 1936. 5. 3.

128) MACCONO,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 250.

129) 같은 책 II 240.

130) 상동.

는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런데 사소한 것들을 중요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때 사소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칠 때가 있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작은 결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쳐주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측은히 여기고 모두에게는 애덕을 베푸세요. 보세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질들을 알아낼 줄 알고, 그것들을 또한 공부해야 합니다. 신뢰심을 붙여 넣어주어야 합니다.”¹³¹⁾

그의 모든 편지들은 이성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시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때로 실험적인 모든 심리학보다 더욱 분명한 마음 심리학에 대한 작은 논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덕을 사랑하셨다.

바오로 6세는 그의 담화에서 단언하였다. “마리아는 감탄할 만한 본보기, 모델이요 거울이시다. 그분은 무엇을 반사하실까? 하느님과 같은 완전함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업인 창조물 중에서 가장 높고 완전하며 빛나는 모범인 성모님을 알아 공경하고 관상할 수 있다 [...].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정의, 순수한, 결백한, 흠 없는, 타고나는, 원시의 아름다움에 대한 즉각적인 반사를 포착할 수 있다.”¹³²⁾ “... 대단한 완전함, 아름다움, 결백함, 내적 조화로움 그리고 더없이 크고

131) 편지 22, 2.

132) 바오로 6세, 담화 1966. 8. 15.

겸손한 외적 위엄 그 이상으로, 인류의 실제적이고 이상적인 모상이
시다.”¹³³⁾

마리아 안에 있는 이런 “모범적인 성덕, 천상적 은총은 인류에게
천상적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¹³⁴⁾ ‘건고한 복음적 덕들’¹³⁵⁾과 여
덩 가지 행복의 종합이며 요약인 마리아는 하늘나라에 도달하기 위
하여 보다 다가가기 쉽고 평탄한 길로서 우리 앞에 계신다.

마리아 마자렐로는 이를 터득하였고 어릴 때부터 이 안전한 길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마리아와 함께, 자
신이 제안했던 마리아의 참된 모상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신 동정녀
안에서 관상한 모든 덕들로 새롭게 옷 입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수녀들이 증언한다. “덕에 대한 그녀의 열성은 점점 커져갔다. 우
리는 그녀가 더 선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¹³⁶⁾ “완전
함과 덕의 훈련에서 하루하루 진보가 보였다.”¹³⁷⁾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지체하는 법도, 속도를 늦추는 정신
적 흥미함도 없었다.

한 수녀가 증언한다. “덕과 직무 실천에서 그녀는 참으로 죽을 때
까지 항구하였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¹³⁸⁾ “비록 내적인 영의 위로는
한 번도 받지 못했을지라도(그녀의 고백), 언제나 활기찬 열성을 유지하

133) 바오로 6세, 담화 1968. 12. 8.

134) 마리아 공경 57.

135) 상동.

136) MACCONO, 정신 335.

137) 상동.

138) 상동.

였다.”¹³⁹⁾

“가장 관대한 유순함, 쾌활함, 완전함과 함께 한 덕”¹⁴⁰⁾을 실천하는 것을 곁에서 살면서 보았던 많은 사람이 증언한다. 마드레 엔리케타 소르보네가 증언한다. “하느님의 종은 영웅적일 정도로 모든 덕을 실천 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덕들을 모두, 또 가장 탁월한 완전함으로 변함없이 실천하는 그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극한 단순함으로, 일상 안에서 비범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¹⁴¹⁾

칼리에로 추기경이 권위있게 이를 뒷받침 해준다. “거룩하고 완전한 영혼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영웅적 수준으로 (모든 덕들을) 훈련하고 실천하였다. 이 영웅적 행위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항구하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요구되었지만, 그녀의 덕스러운 행동방식인 신속함, 용이함, 즐거움으로 이루어졌다.”¹⁴²⁾

그녀는 새 수련자들의 양성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어떤 목적으로 수도회에 들어왔는지 생각하도록 늘 부탁드립니다. 수도복 입을 것만 생각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의 정배라고 불리고 싶은 수녀는 그에 맞는 모든 덕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¹⁴³⁾

덕들의 이런 충만성은 성 암브로시오가 우리에게 제시해준 복되신 동정녀 초상화의 마지막 선線들이다.

139) 같은 책 336.

140) 상동.

141) 상동.

142) 상동.

143) 편지 21, 2

지금까지 우리는 연탄아 산을 이야기면서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 안에 비추어진 마리아의 반영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 앞에는 이렇게 “마리아의 삶이 모든 이들을 위한 규칙이 될 만큼” — 성 앙브로시오가 결론을 내린다 — 유일하게 완전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계시다. 그리고 마리아의 투명하고 리듬인 우리 성녀는 연약한 우리가 마리아를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우 고통한 광채가 밝히는 그 ‘참된 모습’으로서, 마리아의 내적 영혼의 비사한 광채를 우리에게 반사하고 있다.

예언자가 일컫는 만물을 경칭하고 그 만물을 우리의 모델로 삼기 를 멈추지 마자. “너희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죽어 계시지 않으리라니 너희 굳이 너희의 스승을 쉽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오를 줄 것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를같이니 이리로 가거 라.” 하시는 만물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¹⁴³⁾

도움이신 마리아 편들의 길은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이다. 그녀는 복되신 마리아의 형상이 되려고 찬탄화만한 노력을 하였으며, 온 생애를 요약하고 특징짓는 ‘성모님의 삶’이 있는 모습¹⁴⁴⁾이 되었다.

